제19회

인천연구원-기타큐슈시립대학

공동연구발표회

第19回 仁川研究院 -北九州市立大学 共同研究発表会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와 재해대응"

地域社会のレジリエンス強化に向けた安全文化と災害対応

2026. 8. 6. (목) 14:00

인천연구원 대회의실

인천연구원 北九州市立大学

Program

개회식 14:00~14:15

○ 개회 선언, 참석자 소개, 진행순서 안내
○ 환영사 : 최계운(인천연구원장)
○ 답 사 : 미나미 히로시(기타큐슈시립대학 부소장)

1부 14:20~15:50

○ 발표 1 : 이웅(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인천광역시 주거전환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정 및 지원방안 연구

○ 발표 2 : 후카야 히로이(기타큐슈시립대학교 지역전략연구소 교수)
- 지적장애 아동·성인 지원기관 내 성 관련 행동 현황 및 대응
: 범죄 예방·권익 옹호의 관점에서

○ 질의응답 (10분)

휴식 15:50~16:00

2부 16:00~17:30

○ 발표 3 : 안승현(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신뢰 기반 실행전략

○ 발표 4 : 이승한(기타큐슈시립대학교 지역전략연구소 특임교원)
- 기타큐슈·고쿠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지역 안전문화 형성에 관한 고찰

○ 질의응답 (10분)

실무회의 17:30~17:45

○ 익년도 공동연구 방향 협의

맺음말 17:45

※ 사회: 채은경(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장)

Program

開会式 14:00~14:15

○ 開会宣言、参加者紹介、進行順序のご案内
○ 歓迎の辞：崔桂澐, Gye Woon Choi(仁川研究院 院長)
○ 答　　辞：南博, MINAMI HIROSHI(北九州市立大学 地域戦略研究所 副所長)

第1部 14:20~15:50

○ 発表 1：李 雄, Lee Woong(仁川市社会サービス院 政策研究室 研究委員)
　　－ 仁川広域市における住居転換障害者の地域社会への定着過程と支援策に関する研究
○ 発表 2：深谷 裕, FUKAYA HIROI（北九州市立大学 地域戦略研究所 教授）
　　－ 知的障害児者支援事業所における性関連行動の現状と対応
　　：防犯・権利擁護の観点から
○ 質疑応答（10分）

休憩 15:50~16:00

第2部 16:00~17:30

○ 発表 3：安承鉉, An Seung Hyun(仁川研究院 仁川安全都市研究センター 招聘研究委員)
　　－ 仁川広域市の災害安全意識向上に向けた政策への信頼性に基づく実行戦略
○ 発表 4：李乗漢, Lee Seung Han(北九州市立大学 地域戦略研究所 特任教員)
　　－ 北九州・小倉の歴史的経験を通じた地域の安全文化形成に関する考察
○ 質疑応答（10分）

実務会議 17:30~17:45

○ 次年度の共同研究の方向性に関する協議

閉会 17:45

※ 司会： 蔡銀耕(Chai Eunkyong, 仁川研究院 研究企画室長)

목차 / 目次

□ 1부

○ **발표1 : 인천광역시 주거전환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정 및 지원방안 연구** …· 7

仁川広域市における住居転換障害者の地域社会への定着過程と支援策に関する研究

○ **발표2** : 知的障害児者支援事業所における性関連行動の現状と対応

: 防犯 · 権利擁護の観点から …… 21

지적장애 아동·성인 지원기관 내 성 관련 행동 현황 및 대응

: 범죄 예방·권익 옹호의 관점에서

□ 2부

○ **발표3 :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신뢰 기반 실행전략** … 35

仁川広域市の災害安全意識向上に向けた政策への信頼性に基づく実行戦略

○ **발표4** : 北九州 · 小倉の歴史的経験を通じた地域の安全文化形成に関する考察 … 65

기타큐슈·고쿠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지역 안전문화 형성에 관한 고찰

≫ 발표 1

인천광역시 주거전환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정 및 지원방안 연구

仁川広域市における住居転換障害者の地域社会への定着過程と支援策に関する研究

이 웅(李 雄, Lee Woong)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仁川市社会サービス院 政策研究室 研究委員

인천광역시 주거전환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정 및 지원방안 연구

2026. 8. 6.(목)

이 웅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천광역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목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주요 결과

4. 결론 및 제언

1. 연구배경 및 목적

□ 오늘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자립)은 장애인에게도 사회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실천이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2000년대 이후부터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혹은 자립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다뤄져 왔음

□ 인천에서도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설립 및 장애인 지원주택 도입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에 필요한 기반 마련에 힘써 왔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천지역 주거전환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음

□ 이를 위해 인천지역 장애인이 원가정에서 거주시설을 거쳐 지역사회에 정착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지역 주거전환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정 유형화, 주거전환 영향요인, 그리고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 등 총 3가지임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문헌연구
- √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에 관한 주요 개념 검토
- √ 장애인의 주거전환 및 지역사회 정착 영향요인 선행연구 검토
- √ 국내외 장애인 주거전환 사례 및 지원정책 검토

□ 장애인 당사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 √ 인천광역시 주거전환 장애인 대상 1:1 심층 인터뷰(22명)
- √ 인천광역시 주거전환 장애인 대상 삶의 만족도 조사

□ 전문가 자문
- √ 전반적인 연구방향성 논의
- √ 연구대상 인터뷰 질문지 및 분석결과 논의 등

인천광역시 주거전환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과정 유형화, 주거전환 영향요인 및 지원방안 도출

* "주거전환" 장애인은 기존의 "탈시설" 장애인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는 주거전환이라는 용어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수인 주거 중심의 정책적 지원에 보다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주거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4

3. 주요결과(1)

인터뷰 개요

□ 기 간 : 2024. 8. ~ 9.

□ 방 법 : 1대1 심층인터뷰(사례연구)

□ 장 소 : 인터뷰 참여자 주거지 또는 이용기관 등

□ 대 상 : 인천지역 주거전환 장애인 22명

- 성별, 장애유형(신체, 정신), 연령대 기준 적용

□ 내 용

- 지역사회 정착과정
- 주거전환 영향요인
-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등

지역사회 정착과정 유형화

구분		보육원 등 경유형 (원가정 → 거주시설)	
		예	아니오
전환주거 경유형 (거주시설→독립주거)	예	A (a. b. d. e. h. p. q. r. s. u. v)	B (f. g. i. j. m. n. o. t)
	아니오	D (c)	C (l. k)

5

3. 주요결과(2)

유형 A 주요 특성

원가정 → 보육원 등 → 거주 시설 → 전환 주거 → 독립 주거

□ 유형 A의 주요 특성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사고 등 사적 돌봄의 부재 상태에서 보육원 뿐만 아니라 아동을 위한 긴급 및 단기보호, 병원입원, 노숙 등의 과정을 거쳐 거주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는 것임

□ 또한 보육원에서 지내는 과정에서 보육원 관계자의 권유나 판단으로 장애판정을 받고 거주시설로 주거전환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전환주거 방식을 이용했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음

유형 B 주요 특성

원가정 → 거주 시설 → 전환 주거 → 독립 주거

□ 유형 B는 유형 A와 유사해 보이지만, 유형 A가 무연고 상태에 따른 사적 돌봄의 부재였다면, 유형 B는 부 또는 모가 있음에도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원가정에서 양육 부담이 증가하여 거주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는 점이 다름

□ 유형 A의 경우 보육원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장애판정을 받아 거주시설에 입소한 반면, 유형 B는 이미 장애가 있음을 인지하거나 장애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원가정 돌봄에 부담이 생겨 거주시설에 입소하였다는 점이 다름

□ 유형 B는 유형 A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전환주거를 통해 독립주거로 나아갔다는 점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음

6

3. 주요결과(3)

유형 C 주요 특성

원가정 → 거주 시설 → 독립 주거

- □ 유형 C는 모두 연령대가 비교적 낮은 시각장애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 □ 특히 두 사례 모두 가족의 권유와 의뢰로 거주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으나 계속해서 가족과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특징이 있음
- □ 또한 거주시설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고, 먼저 자립한 동료들을 보면서 또는 그들의 권유로 독립주거 생활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 두 사례 모두 안마사라는 직업 활동을 하다는 점 또한 특징이며, 두 사례 모두 거주시설에서 나갈 때가 되었다는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주거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유형 D 주요 특성

원가정 → 보육원 등 → 거주 시설 → 독립 주거

- □ 마지막으로 유형 D는 1개의 사례가 해당되는데, 원가정에서의 기억은 전혀 없으며, 6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보육원 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 보육원 두 곳에서 지내다 장애판정을 받고 거주시설에 입소한 사례임
- □ 사례 c의 경우, 자립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는데, 거주시설의 권유나 설득이 아닌 본인 스스로 독립주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거주시설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특징이 있음

7

3. 주요결과(4)

주거전환 영향요인 : 원가정 → 거주시설

- □ 사례분석을 통해 원가정에서 거주시설로의 주거전환 영향요인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사고, 질환, 방임 등 원가정과 관련되어 발생한 부정적인 상황과 양육 부담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는 '사적 돌봄의 부재'와 '양육 부담'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음
- □ 주목할 점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22개 사례 가운데 총 9개 사례가 원가정의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해 보육원을 거쳐 거주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는 것임
- □ 사적 돌봄의 부재는 장애인거주시설이라는 공적 돌봄 체계로 편입되기 전, 보육원과 같은 또 다른 공적 체계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며, 이는 그 동안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새로운 정책적 개입 지점이라 할 수 있음

사례 : 원가정 → 거주시설

...길 데가 없었어가지고 오빠랑 저랑 같이 시설에 갔었어요... 엄마가 많이 편찮으셨어서 오빠랑 저를 돌봐주실 분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가라고... [사례 b]

저를 낳고 엄마가 키우기 힘들어서 쓰레기통에다가 그니까 밖에 쓰레기장에다가 버렸고, 할머니가 쓰레기장에 버렸던 나를 데리고 가서 키웠는데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000거주시설로 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례 n]

제가 17살 때 잠깐 어디 시설(보육원)에 가자고... 거기는 비장애인들이 사는 그런 데더라고요... 거기서 세 달 있다가, 거기 계신 분들이 저랑 동생이 하는 행동을 보고 좀 문제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어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주시설에 오게 됐어요. [사례 q]

8

3. 주요결과(5)

주거전환 영향요인 : 거주시설 → 독립주거

□ 사례분석을 통해 거주시설에서 독립주거로 이어지는 주거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종합하면, 거주시설 등의 자립지원 정책과 장애인 당사자의 의지가 결합되어 주거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음

□ 거주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립지원 정책의 경우, 당사자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의지는 자립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아서 보다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예컨대, 자립지원을 통해 먼저 독립주거로 전환했던 사례들이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자립 선배와의 만남이나 동료상담과 같은 기존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갖는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음

사례 : 거주시설 → 독립주거

(자립 관련 프로그램을 위해) OOO선생님이 어디지 나와라 해서, 마음이 좀 나가고 싶었어요. [사례 o]

OO형이 많이 도와준 케이스가 되는데, OO형이 나가면 또 이런 것도 해주고 많이 가르쳐줘가지고, 저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체험홈에서 살아보고... [사례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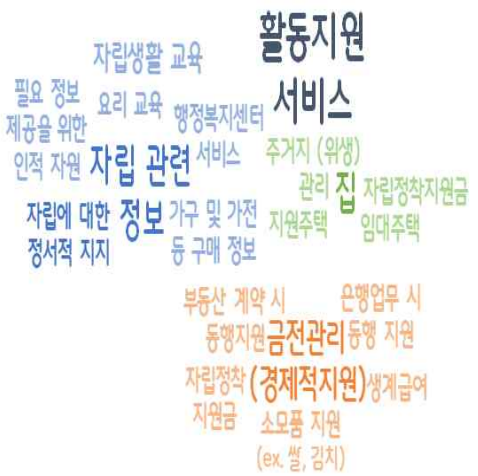
(그때 나오고자 한) 동기는 없어요.. 그냥 제가 빠져나온 거예요... OO형이 나갔고 OO 누나가 나갔고 OO 누나가 나갔고. [사례 n]

혼자 살고 싶기도 하고. 또 (거주시설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해서.. 단체생활이니까. 자기만의 공간도 없고 딱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좀 불편한.. [사례 b]

9

3. 주요결과(6)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었던 지원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10

4. 결론 및 제언(1)

장애인거주시설의 역할과 기능 전환

□ 본 연구에 따르면, (재가)장애인들이 원가정에서 사적 돌봄의 부재로 보육원 등을 거쳐 거주시설에 입소하게 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보육원을 거쳐 거주시설에 입소한 사례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역할과 기능 전환을 통한 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봄

□ 향후 장애인거주시설은 무연고 미성년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과 자립지원을 목표로 기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주요 역할은 연고가 없는 미성년 장애아동에게 24세까지 주거서비스와 함께 성인기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전환주거의 체계화

단계	전환주거 A	전환주거 B
주요 대상	주거전환 발달장애인으로 한정	모든 주거전환 장애인
지원 수준*	중	하
지원 방식	기존 그룹홈 방식과 동일 (향후 개선안 적용)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필요 서비스 제공
지원인력 상주여부	○ (지원인력 비율을 1:4에서 1:2로 변경)	X
향후 추진 방식	개선된 그룹홈에 대한 운영방안 적용	기존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등을 단기자립생활주택으로 일원화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수준을 '상'으로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함

11

4. 결론 및 제언(2)

지역사회 초기 적응 지원방안

□ 거주시설 중심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립생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사업 활성화

□ 인적자원 투입을 통한 자립생활 관련 정보 제공
(ex. 부동산, 은행 등 동행지원서비스)

□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위한 지원

✓ 초기정착금의 안정적 지원 및 관련 정보 고지

✓ 청약통장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신청

□ 주거전환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제공 (지속) 필요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방안

□ 독립주거 이후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c.f.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 주거전환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제공(지속) 필요

□ 단시간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c.f. 동대문장애인복지관의 24시간 장애인 도움콜)

□ 주택환경개선사업의 질적·양적 개선

□ 지역사회 내 물리적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증진 및 관련 계획수립

12

仁川広域市における住居転換障害者の地域社会への定着過程と支援策に関する研究

2026. 8. 6.(木)

イ・ウン

(仁川広域市社会サービス院 政策研究室 研究委員)

仁川広域市社会サービス院　　仁川広域市障害者住居転換支援センター

目次

1. 研究背景及び目的

2. 研究内容及び方法

3. 主な結果

4. 結論及び提言

1. 研究背景及び目的

□ 今日、障害者の地域社会への定着(自立)は、障害者にとっても社会的にも最も重要な実践かつ政策として位置付けられている

□ 国内の場合、2000年代以降、障害者の地域社会への定着と自立が中央政府および自治体の重要な政策課題の一つとなっている

□ 仁川広域市も障害者住居転換支援センターの設立や障害者支援住宅の導入など、障害者の地域社会への定着と自立に向けた基盤整備を推進してきた

□ このような状況の中、本研究は仁川広域市の住居転換障害者が地域社会へ定着するためにはより体系的な支援策が必要であるという問題意識から始まった

□ そのため、仁川広域市の障害者が生まれ育った家庭から居住施設を経て地域社会に定着するまでの一連の過程を事例研究を通して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

□ 本研究の目的は、仁川広域市における住居転換障害者の地域社会への定着過程の類型化、住居転換に影響を及ぼす要因、地域社会への定着に向けた支援策の3点である

3

2. 研究内容及び方法

□文献研究

✓ 障害者の地域社会への定着と自立に関する主要概念の検討

✓ 障害者の住居転換と地域社会への定着に影響を及ぼす要因に関する先行研究の検討

✓ 国内外における障害者の住居転換事例と支援政策の検討

□障害者本人へのインタビューとアンケート調査

✓ 仁川広域市の住居転換障害者を対象にした1:1の深層インタビュー(22名)

✓ 仁川広域市の住居転換障害者を対象にした生活満足度調査

□専門家の意見

✓ 全般的な研究の方向性について議論

✓ 研究対象者へのインタビューの質問リストと分析結果の議論など

仁川広域市における住居転換障害者*の地域社会への定着過程の類型化、住居転換に影響を及ぼす要因の分析、支援策の模索

「住居転換」障害者は、従来の「脱施設」障害者を意味する。ただし、本研究では「住居転換」という用語の方が、障害者の地域社会への定着に不可欠な住居中心の政策支援とマッチしていると判断し、住居転換という用語を使用した

4

3. 主な結果(1)

インタビューの概要

□ 期間：2024. 8. ~9.

□ 方法：1対1の深層インタビュー(事例研究)

□ 場所：インタビューに参加した人の居住地や利用機関など

対象：仁川広域市の住居転換障害者22名

- 性別、障害の種類(身体、精神)、年齢層に応じて適用

□ 内容

- 地域社会への定着過程
- 住居転換に影響を及ぼす要因
- 地域社会への定着に向けた支援策など

地域社会への定着過程の類型化

区分		養護施設など経由した類型 (生まれ育った家庭→居住施設)	
		はい	いいえ
転換住居を経由した類型 (居住施設→独立住居)	はい	A (a. b. d. e. h. p. q. r. s. u. v)	B (f. g. i. j. m. n. o. t)
	いいえ	D (c)	C (l. k)

5

3. 主な結果(2)

類型Aの主な特性

生まれ育った家庭 → 養護施設など → 居住施設 → 転換住居 → 独立住居

□ 類型Aの主な特徴は、親の離婚や死亡などでケアラー不在となり、養護施設への入所、子どもの緊急・一時保護、入院、野宿などの過程を経て居住施設に入所したという点である

□ また、養護施設で過ごす過程で、施設関係者の勧めや判断によって障害があると判定され、居住施設への住居転換が行われており、他の類型に比べて相対的に多様な転換住居を経験したという点も特徴といえる

類型Bの主な特性

生まれ育った家庭 → 居住施設 → 転換住居 → 独立住居

□ 類型Bは類型Aと似ているように見えるが、類型Aは身寄りのない状態でケアラーが不在しているのに対し、類型Bは父または母がいるにもかかわらず、健康悪化や経済的困難などの理由で家庭での養育負担が増し、居住施設に入所したという点で異なる

□ 類型Aは養護施設で過ごす過程で障害があると判定され、居住施設に入所したのに対し、類型Bはすでに障害があることを認知、または障害があると判定された状態で、家庭で面倒を見ることが負担になったため、居住施設に入所したという点で異なる

□ 類型Bは類型Aに比べて相対的に単純な転換住居を通じて独立住居に至ったという点も異なるといえる

6

3. 主な結果(3)

類型Cの主な特性

生まれ育った家庭 → 居住施設 → 独立住居

- □ 類型Cはみな比較的年齢層が低い視覚障害の女性であるという共通点がある
- □ 特に2つの事例ともに家族の勧めと依頼で居住施設に入所したものの、引き続き家族と連絡を取り合っているという特徴がある
- □ また、居住施設の自立支援プログラムはほとんど利用しておらず、先に自立した仲間の姿を見ながら、または彼らの勧めを通して独立住居生活に対するモチベーションが上がったことが分かった
- □ 2つの事例ともにマッサージ師として経済活動を行っている点が特徴であり、今が居住施設を出るタイミングだと自ら判断したことで自然と独立住居に至った

類型Dの主な特性

生まれ育った家庭 → 養護施設など → 居住施設 → 独立住居

- □ 最後に、類型Dは1つの事例に該当し、生まれ育った家庭での記憶は全くなく、6歳という非常に幼い年齢で養護施設での生活を始めたが、その後2つの養護施設を経験し、障害があると判定されて居住施設に入所したケースである
- □ 事例Cの場合、自立への意志が非常に強く、居住施設の勧めや説得ではなく、本人自らが独立住居を強く求めた結果、居住施設から出たという特徴がある

7

3. 主な結果(4)

住居転換に影響を及ぼす要因:
生まれ育った家庭 → 居住施設

- □ 事例分析を通じて、生まれ育った家庭から居住施設へ住居転換する際に影響を及ぼす要因の中で最も顕著だったのは、親の離婚や死亡、疾病、放置など、家庭のネガティブな事情と養育負担に関するものであり、これは「ケアラーの不在」と「養育負担」という表現で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
- □ 注目すべき点は、本研究で調査した22件の事例のうち、計9件が家庭のネガティブな事情により養護施設を経て居住施設に入所したということである
- □ ケアラーの不在は、障害者居住施設という公的な福祉サービスを利用する前に、養護施設などのような別の公的システムの段階を踏むようにするが、これはこれまで障害者福祉分野において相対的に看過されてきた新たな政策介入のポイントだといえる

事例 : 生まれ育った家庭→居住施設

…行くところがなかったので、兄と一緒に施設に行きました…母の健康状態が悪化し、兄と私の世話してくれる人がいなかったので、祖父から行くように言われて…[事例 b]

母は、私を産んだ後、育てることができずに、ゴミ箱、つまり外のゴミ捨て場に私を捨てたのですが、祖母が捨てられていた私を連れて行って育ててくれました…でも祖母が体調を崩したことで、000居住施設に来ることになったそうです[事例 n]

私が17歳のとき、ちょとだけ施設(養護施設)に行こうと言われて…その施設は非障害者が暮らしているところでした…そこで3か月ほどいたのですが、そこにいた人たちが私と弟の言動を見て、少し問題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になり、どこかの病院に行って検査を受けたんです…それで、その後、居住施設に来ました。[事例 q]

8

3. 主な結果 (5)

住居環境に影響を及ぼす要因 ：居住施設 → 独立住居

- □ 事例分析を通して、居住施設から独立住居に至る住居転換過程に影響を及ぼす要因は多様であったが、総合的に見ると居住施設をはじめとする自立支援政策と障害者本人の意思が結びついて住居転換が進んだことが分かった
- □ 居住施設などを中心とした自立支援政策の場合、当事者の自立への意志に影響を及ぼす間接的な効果がある一方、障害者本人の自立への意志は自立支援政策やプログラムなどによって強まることが分かった
- □ 例えば、自立支援を通じて先に独立住居に転換した人たちの事例が自立への意志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これを通して先に自立した先輩との出会いや仲間への相談など、従来の自立支援プログラムの重要性を再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

事例 ：居住施設 → 独立住居

(自立関連プログラムを受けるために) 000先生が出た方がいいと言ったので、ちょっと出てみようかと思いました [事例 o]

00兄がたくさん助けてくれたケースなのですが、00兄が出て行った後、あれこれと面倒をみてくれて、たくさん教えてくれたので、僕もやっていけそうな気がしてきて、まずは体験ホームで暮らしてみようかと... [事例 t]

(あの時一緒に出ようと言った)同期はいませんでした… ただ私が抜け出したんです… 00兄も、00姉も出たし、00姉も出たので... [事例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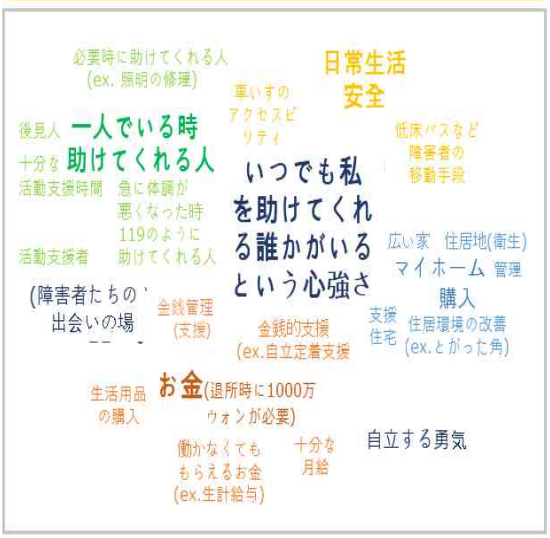
一人暮らしをしてみたいし、(居住施設から)抜け出したい気持ちもあって… 集団生活ですから。自分だけの空間もないし、時間もしっかりと守らないといけないし、ちょっと不便なんで… [事例 b]

9

3. 主な結果(6)

地域社会への定着に役立った支援

地域社会への定着に必要な支援



10

4. 結論及び提言 (1)

障害者居住施設の役割と機能の転換

- □ 本研究によると、(在宅)障害者が生まれ育った家庭でケアラーが不在となり、養護施設などを経て居住施設に入所している点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
- □ 特に、養護施設を経て居住施設に入所した事例に関連して、本研究は障害者居住施設の役割と機能の転換を通じた公的な対応が必要であるとみている
- □ 今後、障害者居住施設は身寄りのない未成年の障害児に対する世話と自立支援を目的とした機能の転換が求められる
- □ 主な役割は、身寄りのない未成年の障害児に対し、24歳まで住居サービスを提供するとともに、成人期には自立した生活ができるよう多様な自立支援プログラムを提供することである

転換住居の体系化

段階	転換住居A	転換住居B
主な対象	住居転換発達障害者に限定	すべての住居転換障害者
支援水準*	中	下
支援方法	既存のグループホーム方法と同じ(今後、改善案を適用)	当事者が要求する場合にのみ必要なサービスを提供
支援人材の常駐有無	O (支援人材の比率を1:4から1:2に変更)	X
今後の推進方法	改善されたグループホームに対する運営方案を適用	既存のグループホーム 自立生活住宅などを 短期自立生活住宅に一元化

*従来の障害者居住施設の支援水準を「上」とした場合を基準とする

11

4. 結論及び提言 (2)

地域社会への初期適応支援策

- □ 居住施設を中心に、日常生活に役立つ自立生活教育とプログラムの開発
- □ 障害者住居転換支援センターを中心としたネットワークの構築と支援事業の活性化
- □ 人的資源の投入による自立生活に関する情報の提供 (ex. 不動産、銀行などの同行支援サービス)
- □ 安定した住居確保のための支援
- ✓ 初期定着金の安定的な支援と関連情報の告知
- ✓ 請約通帳を活用した公共賃貸住宅の申請
- □ 住居転換障害者に対する活動支援サービスの追加提供(持続的に)必要

地域社会への定着に必要な支援策

- □ 独立住居以降、継続して安定した日常生活を送ることができるよう経済的支援(c.f. 京畿道障害者機会所得)
- □ 住居転換障害者に対する活動支援サービスの追加提供(持続的に)必要
- □ 短時間緊急ケアサービスの提供(c.f. 東大門障害者福祉館の24時間障害者サポートダイヤル)
- □ 住居環境改善事業の質的・量的改善
- □ 地域社会における物理的アクセシビリティと利用者の利便性向上及び関連計画の策定

12

≫ 발표 2

知的障害児者支援事業所における性関連行動の現状と対応

- 防犯 · 権利擁護の観点から -

지적장애 아동·성인 지원기관 내 성 관련 행동 현황 및 대응

- 범죄 예방·권익 옹호의 관점에서 -

深谷 裕(후카야 히로이, FUKAYA HIROI)

北九州市立大学 地域戦略研究所 教授

기타큐슈시립대학교 지역전략연구소 교수

知的障害児者支援事業所における性関連行動の現状と対応

―防犯・権利擁護の観点から―

地域戦略研究所
深谷　裕

目次

① 日本における性被害の現状
② 障害のある性被害者の状況
③ 研究の問い・目的・方法
④ 結果（性関連行動の有無、職員認識、組織文化）
⑤ 考察
⑥ 提言

日本における性被害者数の推移

2024年の性犯罪認知件数は、約11000件（不同意性交等罪3936件・不同意わいせつ6992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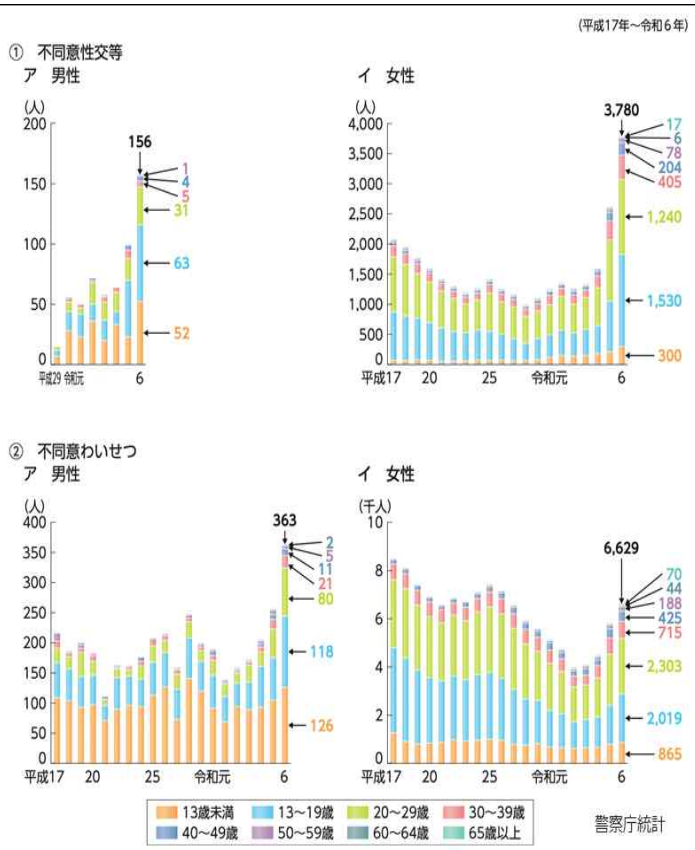
2023年以降大きく増加

▶被害者数の増加？

▶刑法改正により、潜在化していた被害が表面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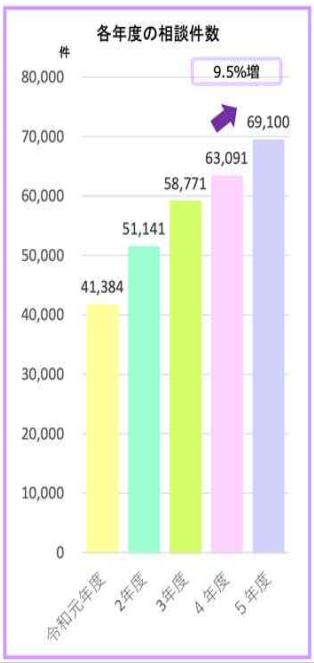
- 処罰範囲・判断基準の明確化
- 社会的認知の高まり
- 相談・届出の増加

▶男性向け相談窓口の整備



障害のある性被害者の状況

ワンストップ支援センター相談件数の推移（全国47ヵ所）



15ヶ所の相談者（N=92）に占める障害者の割合

複数回答（2020年10月～2021年3月）

知的障害	22.6%
精神障害	45.2%
発達障害	24.7%
肢体不自由	4.3%
聴覚障害	1.1%

（岩田,2023）

障害（知的・精神・発達障害）を有する性犯罪被害者への聴取（2023年度）

全聴取件数の27%

障害のある人に対する性暴力被害が潜在化しやすい理由

① 正しく性教育を受けていないため、被害を「被害」といして認識しにくい（権利侵害と認識されない）

② 言葉で被害を伝えることが難しい
（不快な気持ちはあっても、起きていることを説明できない）

③ 相談機関が障害のある相談者を想定していない

④ 介護者・支援者との関係性から被害を訴えにくい

⑤ 本人が直接相談機関にアクセスしにくい

研究の問い、研究目的、方法

研究の問い

障害福祉サービス事業所では、利用者の性に関連する行動に対して、どのように対応しているのか。

研究目的

北九州市内の障害福祉サービス事業所を対象に、利用者の性に関連する行動への職員の受け止め方や、組織としての対応の実態を明らかにする。

研究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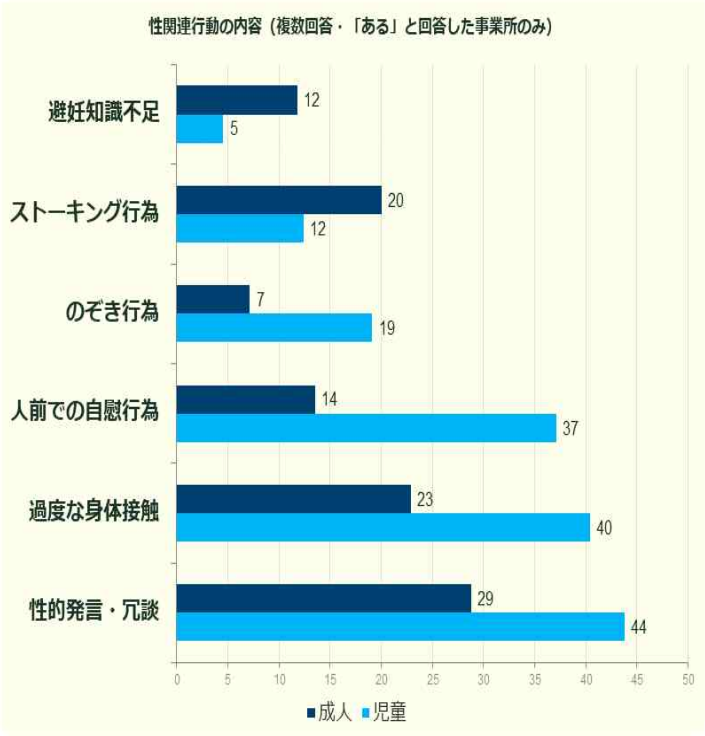
質問紙調査（2025年10月）
対象：北九州市内の障害福祉事業所1888ヶ所（児童612／成人1276）
有効回答：239 (13.7%)【児童89(32.3%) 成人170(13.3%)】

性関連行動の有無と内容

児童事業所(N=89) vs 成人事業所(N=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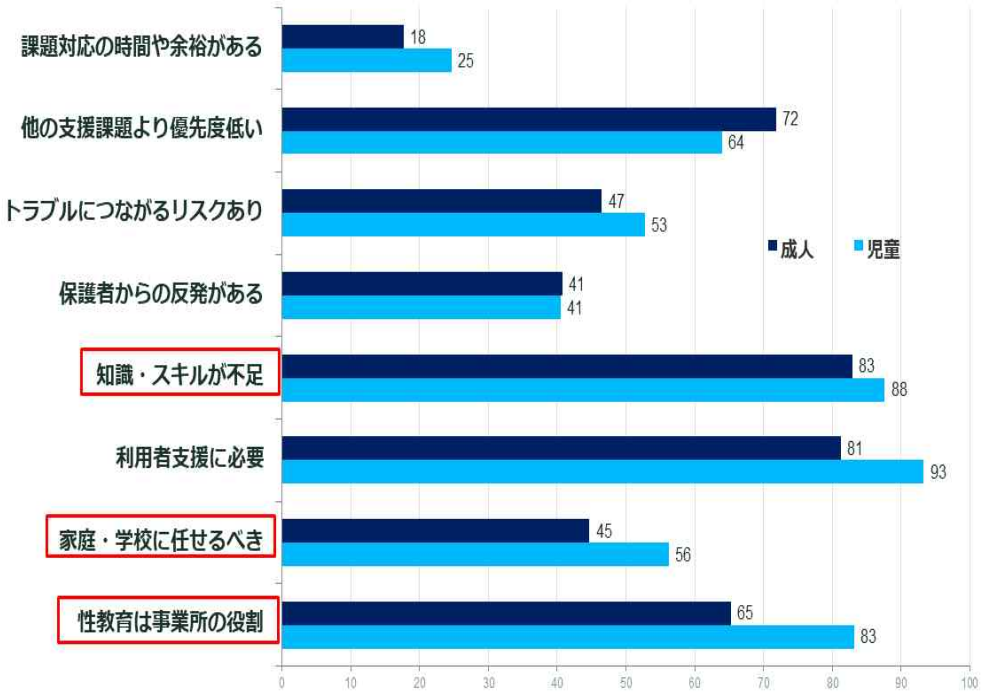
「ある」の割合

児童	成人	全体
65.2%	55.9%	58.7%



性教育に対する認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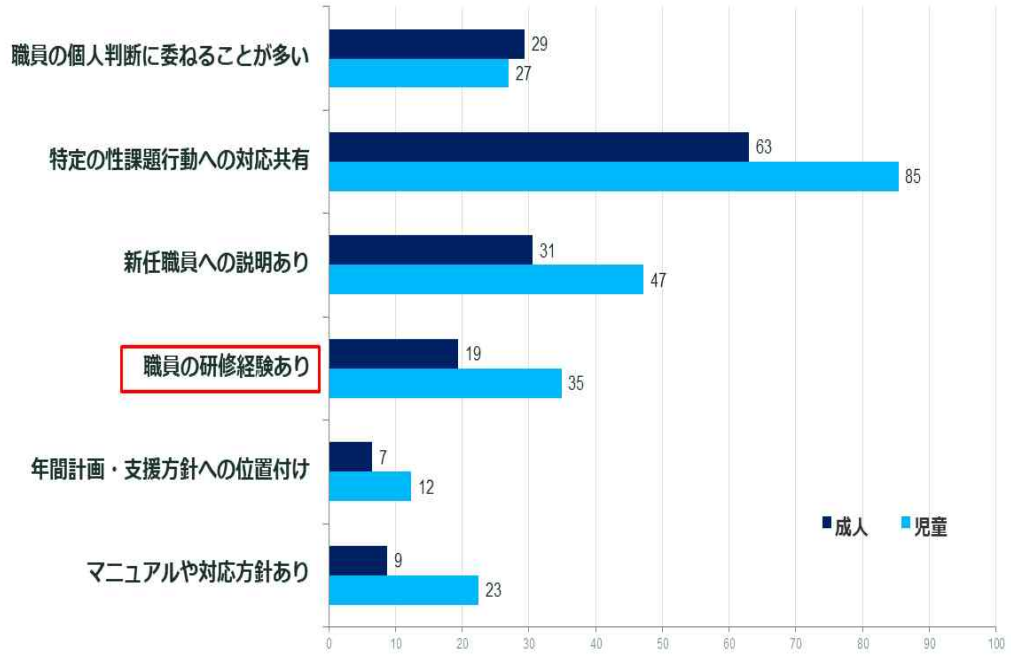
児童(N=89) vs 成人(N=170)



※ 「ややそう思う」+「とてもそう思う」の合計（%）

組織文化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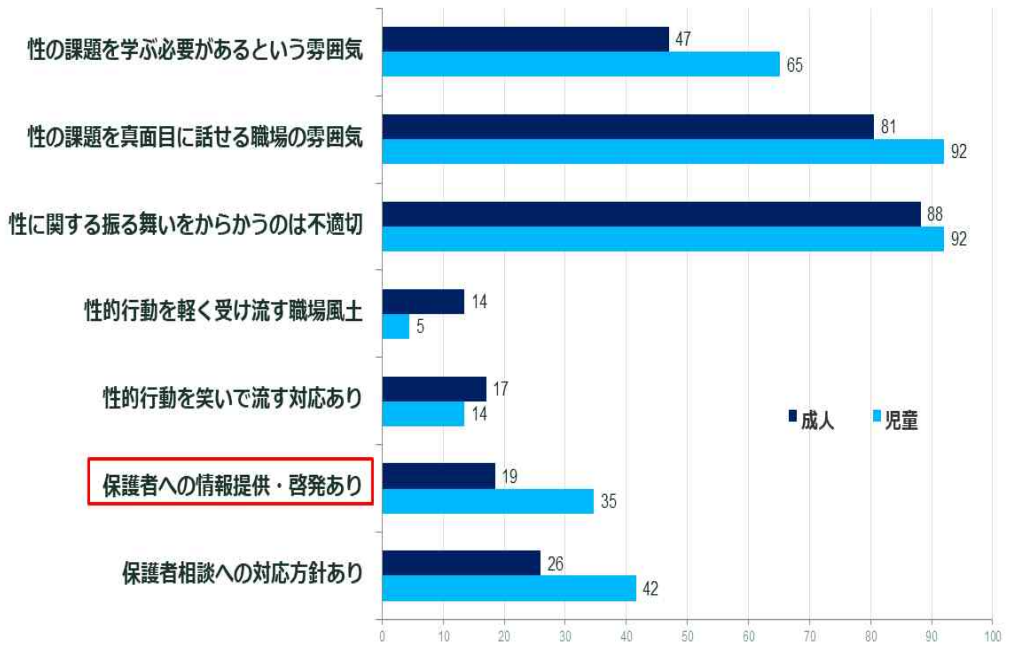
児童(N=89) vs 成人(N=170)



※ 「ややそう思う」+「とてもそう思う」の合計（%）

組織文化②

児童(N=89) vs 成人(N=170)



※ 「ややあてはまる」+「よくあてはまる」の合計（%）

考察

❶性関連行動は両領域で広く存在

- 「ある」と回答した割合は全体で58.7%
- 児童では自慰行為・身体接触、成人ではストーキング・避妊知識不足が特徴的。
- **性加害や性被害につながる可能性**が示唆。

❷支援者は必要性を認識するが知識・時間が不足

- 「利用者支援に必要」という認識は全体で8割程度と高いが、知識不足から後回しになっている。
- **性について学ぶ権利**が損なわれている。

❸制度的基盤（マニュアル・研修）が脆弱

- マニュアルや対応方針が「ある」は放デイ22%・成人8.2%にすぎない。
- 制度的位置づけが曖昧であり、事業者の善意に委ねられ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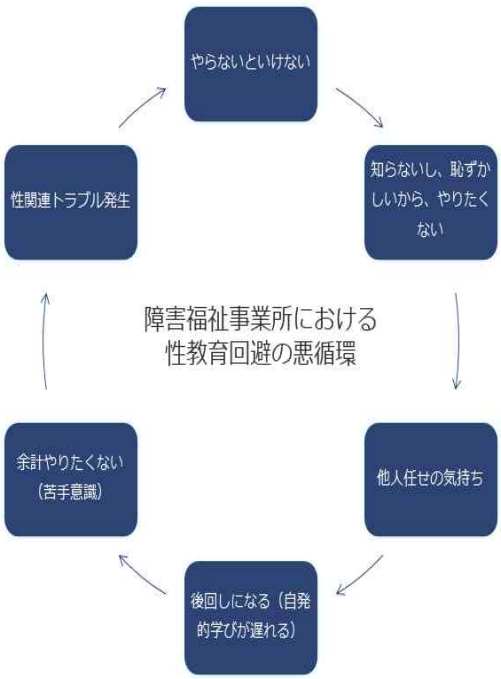
❹性教育の責任に対する矛盾した意識

- 「性教育は事業所の役割」と半数以上が認識している一方で、「家庭・学校に任せるべき」という認識も半数程度。

提言

教えないことは、守ることではない。
むしろ無知が被害・加害を生む。

- 防犯上は、本人に「これは被害」と気づく力をつけることが大切。
- 権利擁護上は、性を危険物扱いせず、本人の恋愛・性を「当たり前の権利」として支える**包括的性教育**の視点が必要。
- 性教育を「勇気のある人がいたらできる」から「**仕組み**があるから誰でもできる」へ変える。



지적장애 아동·성인 지원기관 내 성 관련 행동 현황 및 대응

—범죄 예방·권익 옹호의 관점에서—

지역전략연구소
후카야 히로이

목차

① 일본 내 성폭력 피해 현황
②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현황
③ 연구 질문·목적·방법
④ 연구 결과(성 관련 행동 유무, 관계자 인식, 조직문화)
⑤ 고찰
⑥ 제언

일본의 성범죄 건수 추이

2024년 성범죄 인지 건수는
약 11,000건(부동의 성교 등
죄 3,936건·부동의 외설 6,99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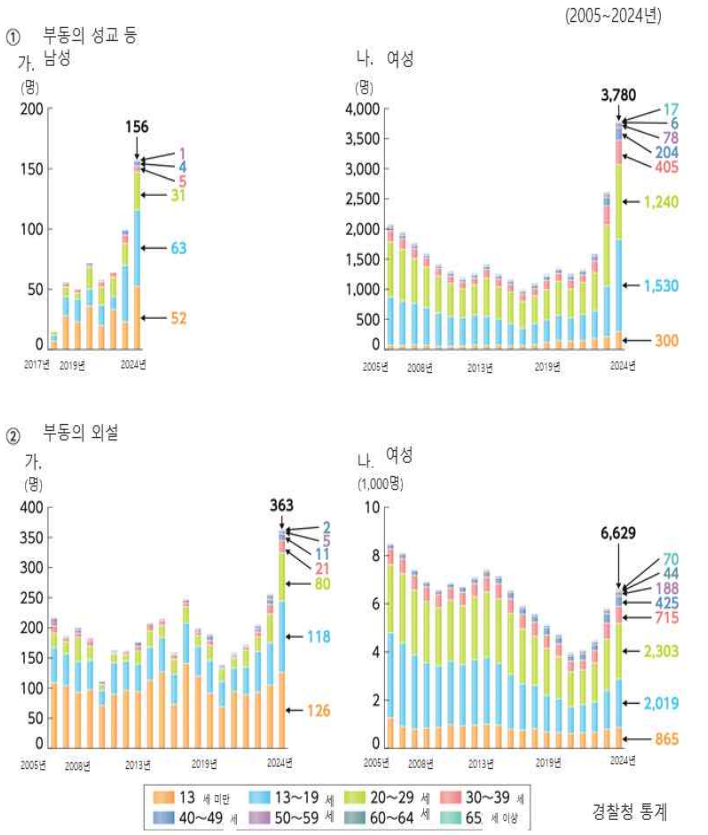
2023년 이후 크게 증가

▶피해자 수 증가?

▶형법 개정으로 잠재 피해 표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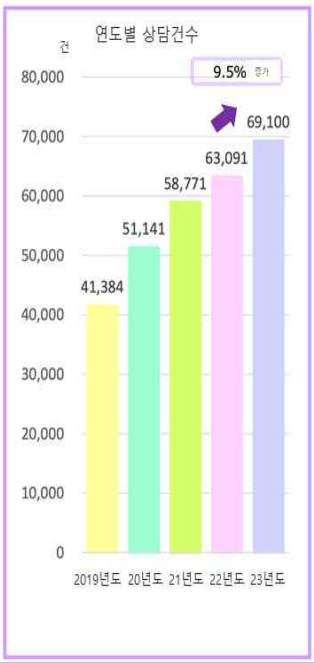
- 처벌 범위·판단 기준 명확화
- 사회적 인지도 상승
- 상담·신고 증가

▶남성 대상 상담창구 정비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 현황

원스톱 지원센터 상담 건수 추이
(전국47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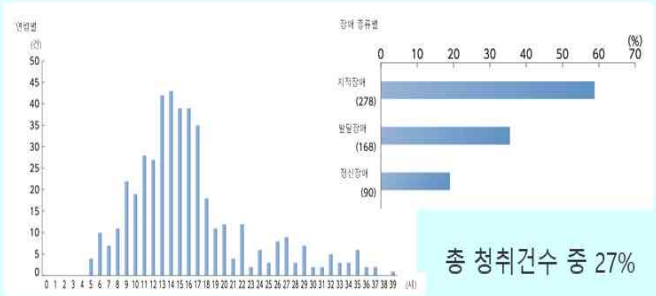


15개 센터 상담자(N=92) 중 장애인 비율
복수 응답(2020년10월~2021년3월)

지적장애	22.6%
정신장애	45.2%
발달장애	24.7%
지체장애	4.3%
청각장애	1.1%

(이와타, 2023)

장애(지적·정신·발달장애)를 가진 성범죄 피해자 진술 청취(2023년도)



총 청취건수 중 27%

장애인 대상 성폭력 피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

①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해 피해 사실을 '피해'로 인식하기 어려움(권리 침해로 인식되지 않음)

② 피해 사실을 말로 전달하기 어려움
(불쾌함을 느꼈더라도 해당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못함)

③ 상담 기관에서 장애인 상담자일 경우를 상정하지 않음

④ 돌봄 제공자·대상자 간 관계성으로 인해 피해 호소가 어려움

⑤ 피해자 본인이 상담 기관과 직접 접촉하기 어려움

연구 질문,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질문

장애복지서비스 기관에서는 이용자의 성 관련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연구 목적

기타큐슈시 내 장애복지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성 관련 행동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과 조직차원에서의 대응 실태 파악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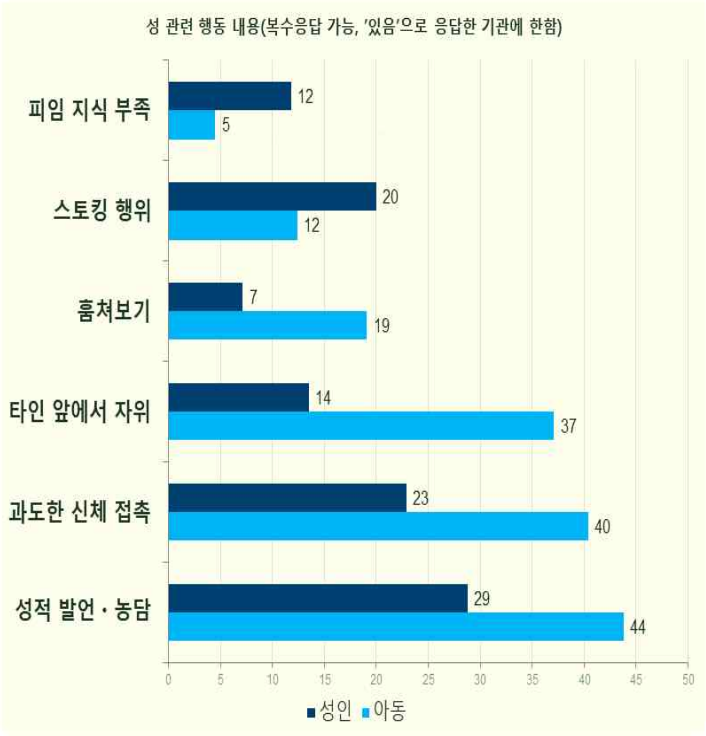
설문조사(2025년10월)
대상: 기타큐슈시 내 장애복지서비스 기관 1888곳(아동 612/성인 1276)
유효 응답: 239(13.7%) [아동 89(32.3%) 성인 170(13.3%)]

성 관련 행동 유무 및 내용

아동 기관(N=89) vs 성인 기관(N=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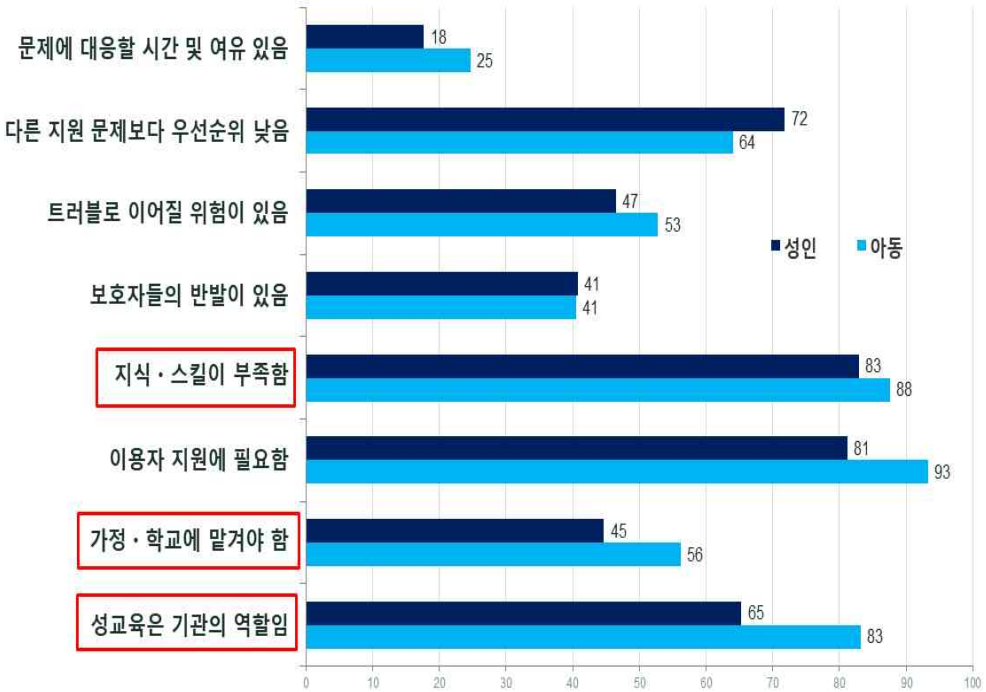
'있음' 비율

아동	성인	전체
65.2%	55.9%	58.7%



성교육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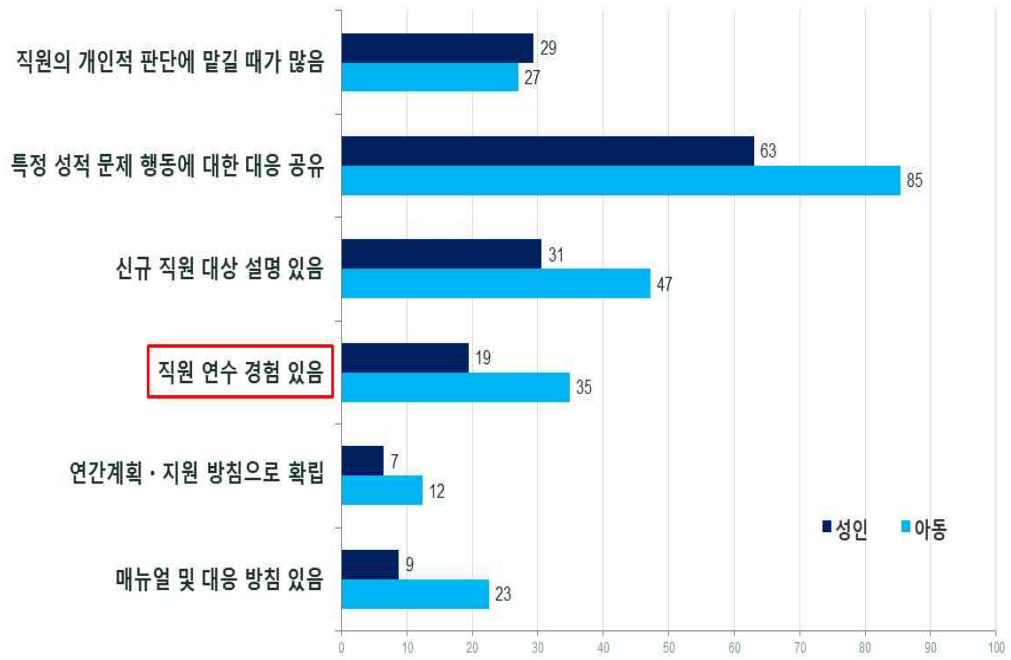
아동(N=89) vs 성인(N=170)



※ '다소 그렇게 생각한다'+'매우 그렇게 생각한다'의 합계(%)

조직문화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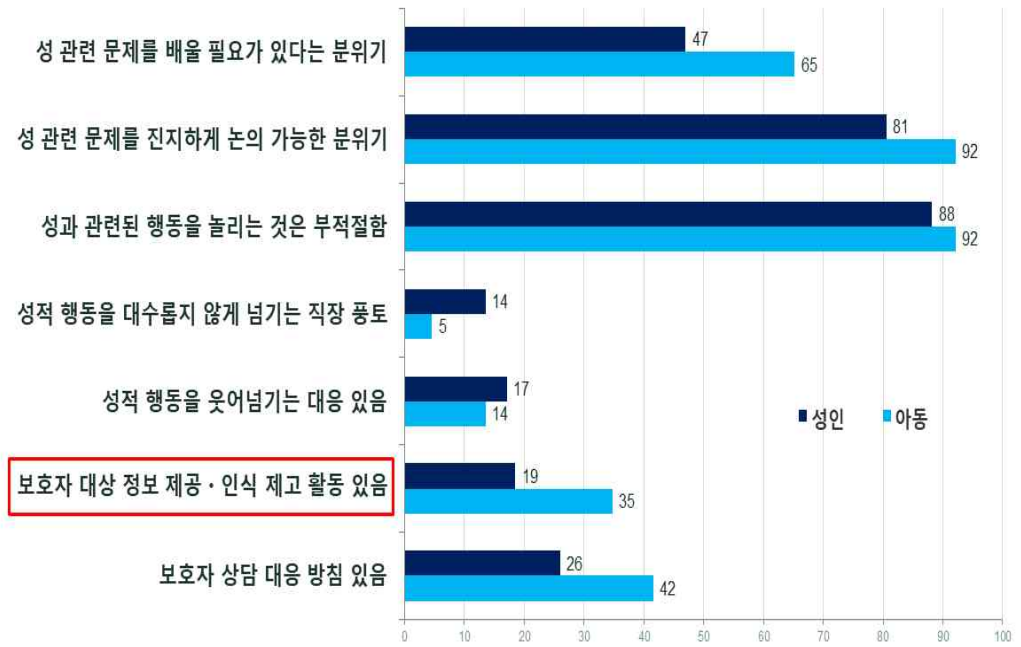
아동(N=89) vs 성인(N=170)



※ '다소 그렇게 생각한다'+'매우 그렇게 생각한다'의 합계(%)

조직문화②

아동(N=89) vs 성인(N=170)



※ '다소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합계(%)

고찰

❶ 성관련행동은 양쪽 모두에서 폭넓게 존재함

-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중 58.7%
- 아동의 경우 자위행위·신체접촉, 성인의 경우 스토킹·피임 지식 부족이 특징적
- **성적 가해·성폭력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시사

❷ 관계자는 필요성을 인식하나 지식·시간이 부족

- '이용자 지원에 필요'라는 인식은 전체의 약 80%로 높지만 관련 지식 부족으로 우선순위가 미뤄지고 있음
- **성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음

❸ 제도적 기반(매뉴얼·연수)이 취약함

- 매뉴얼 및 대응 방침이 '있음'의 경우 방과후 돌봄 22%·성인 8.2%에 그침
- 제도적 위치가 애매하여 사업자의 선의에 맡겨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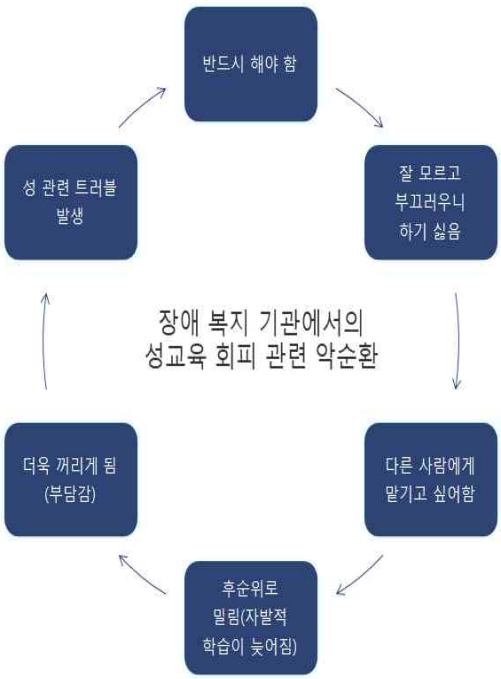
❹ 성교육 책임에 대한 순된 인식

- '성교육은 기관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절반 이상, '가정·학교에 맡겨야 함 ' 이라는 인식도 절반 가량

제언

가르치지 않는 것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지가 피해·가해를 초래함.

- 범죄 예방 측면에서는 당사자가 '이것은 피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권익 옹호 측면에서는 성을 위험물 취급하지 말고 당사자의 연애·성을 '당연한 권리'로서 지원하는 **포괄적 성교육**의 관점이 필요함.
- 성교육을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능'한 것에서 '**체계**가 갖춰졌으므로 누구든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켜야 함.



≫ 발표 3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신뢰 기반 실행전략

仁川広域市の災害安全意識向上に向けた政策への信頼性に基づく実行戦略

안승현(安承鉉, An Seung Hyun)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仁川研究院 仁川安全都市研究センター 招聘研究委員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신뢰 기반 실행전략

발표자: 안승현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2026. 08. 06.

THE INCHEON INSTITUTE

iSRC INCHEON SAFE CITY RESEARCH CENTER

CONTENTS

Ⅰ 연구 배경

Ⅱ 재난안전 의식과 시민 실천

Ⅲ 연구 결과

Ⅳ 정책 실행전략

Ⅴ 결론

I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신뢰 기반 실행전략
연구 배경
all ways INCHEON

연구 배경
The Incheon Institute
복합위험 시대의 도시재난
도시재난은 다양한 위험이 중첩되는 방향으로 변화함
기후변화
극한기상 증가 및 자연재난의 대형화
도시화
인구·시설 밀집으로 재난영향 확대
사회적 취약성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증가
노후 인프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
복합재난
다양한 위험의 동시 발생과 상호작용
복합위험 시대에는 재난환경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4

연구 배경

The Incheon Institute

전통적 재난관리의 한계

복합위험은 전통적 재난관리 체계의 한계를 드러냄

전통적 재난관리		복합위험 시대의 재난관리
행정 중심 대응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 전환 →	복합재난 복합·다중위험 환경
사후 대응 중심 재난 발생 이후 복구		상호연계된 위험 도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
분절된 대응체계 기관 간 협력 부족		사회적 대응 정책 신뢰와 시민 참여
시설 중심 관리 물리적 대응수단 우선		지역사회 회복력 협력 기반 재난관리 강화

복합위험 시대에는 전통적 재난관리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5

연구 배경

The Incheon Institute

도시회복력 중심의 재난관리

재난관리는 도시회복력 중심으로 발전함

재난관리	→	재난위험관리	→	도시회복력
대응 중심		위험 저감		적응 역량
행정 중심		예방 및 대비		협력적 거버넌스
재난 이후 복구		통합적 계획		지역사회 참여

도시회복력은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6

II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신뢰 기반 실행전략
재난안전 의식과 시민 실천
all ways INCHEON

재난안전 의식과 시민 실천
The Incheon Institute
인식과 실천의 간극
위험 인식과 예방 행동 사이에는 다양한 장벽이 존재함
위험 인식
위험성 인지
재난안전 의식
정보 습득
심리적·사회적 장벽
낮은 신뢰
정상성 편향
위험 피로감
제한된 참여
예방 행동
대비 행동
지역사회 참여
정책 수용성
위험 인식을 시민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8

재난안전 의식과 시민 실천

The Incheon Institute

행동 메커니즘

재난 대응 행동은 다양한 심리적·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음

재난 대비 행동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개인의 대응 역량과 신뢰, 공동체의 역량에 의해 형성된다.

9

재난안전 의식과 시민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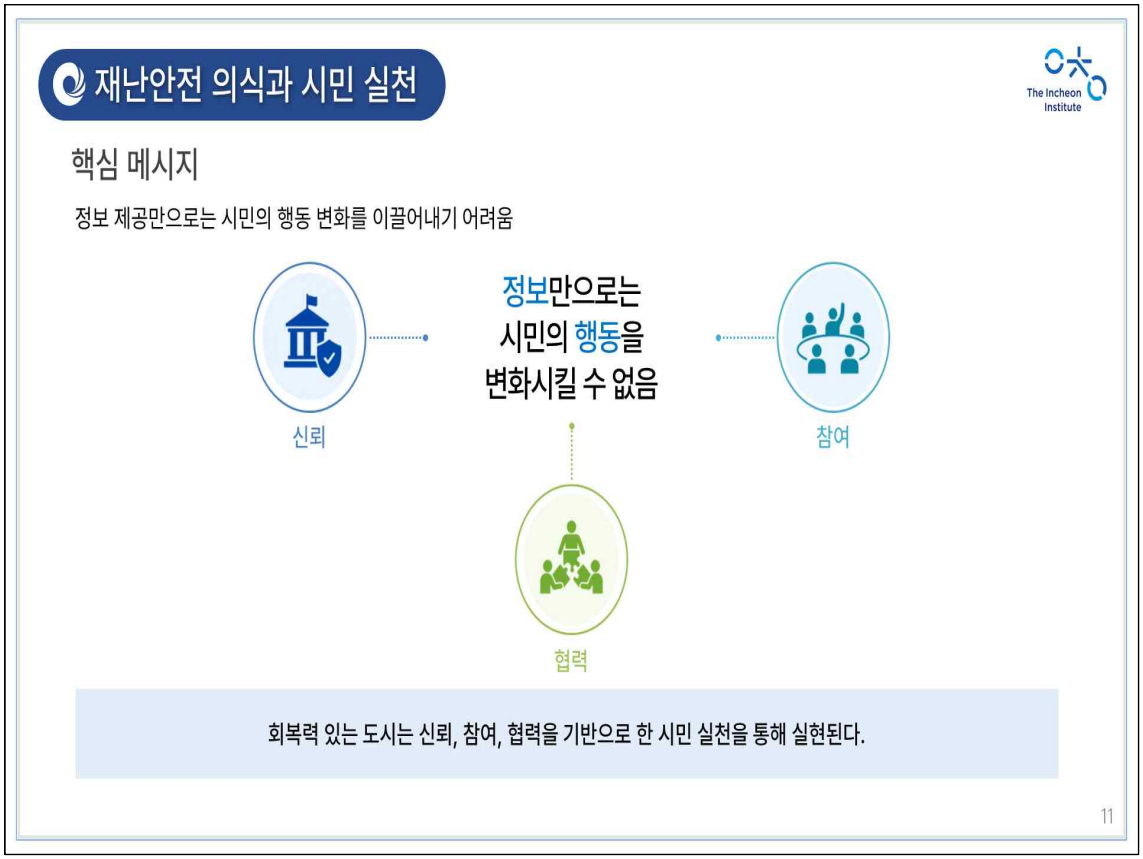
The Incheon Institute

정책 신뢰의 역할

정책 신뢰는 재난안전관리의 다양한 요소와 상호작용함

정책 신뢰는 정책 수용성, 위험 소통, 안전 인식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한다.

10


재난안전 의식과 시민 실천
The Incheon Institute
핵심 메시지
정보 제공만으로는 시민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움
정보만으로는
시민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음
신뢰
참여
협력
회복력 있는 도시는 신뢰, 참여,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시민 실천을 통해 실현된다.
11

III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신뢰 기반 실행전략
연구 결과
all ways INCHEON

연구 결과

The Incheon Institute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재난안전 체감도, 인식도, 실천도 및 공공·사회적 신뢰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함

조사 개요

- 격년 단위로 실시
- 인천시민 대상 (15세 이상)
- 인천연구원 수행
- 2022년부터 실시

체감도

시민이 일상생활과 다양한 재난 유형에서 체감하는 안전 수준

- 거주지 및 인천시 안전도
- 재난 유형별 안전도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 안전 체감의 영향 요인

인식도

시민이 재난과 안전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는 수준

- 위험 인식
- 재난 유형별 대응 지식
- 대비의 중요성 인식

실천도

시민이 안전을 위해 준비하고 실천하는 행동 수준

- 가정 내 대비 활동
- 교육 및 훈련 참여
- 정보 탐색 및 공유

공공 및 사회적 신뢰도

시민이 공공기관과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해 갖는 신뢰 수준

- 공공기관 신뢰
- 재난 대응 역량 신뢰
- 취약계층 지원 신뢰

조사 결과는 시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도시회복력과 안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된다.

13

연구 결과

The Incheon Institute

인식과 실천의 간극: 높은 인식, 낮은 실천

재난안전 인식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실천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재난안전 인식도

시민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

3.489

1 2 3 4 5

인식-실천 간극

0.521 points

재난안전 실천도

시민의 재난 대비 및 실천 수준

2.968

1 2 3 4 5

인식과 실천의 간극 해소는 지역사회 회복력과 재난 대비를 강화하는 핵심 과제이다.

14

연구 결과

The Incheon Institute

재난안전 인식도와 정책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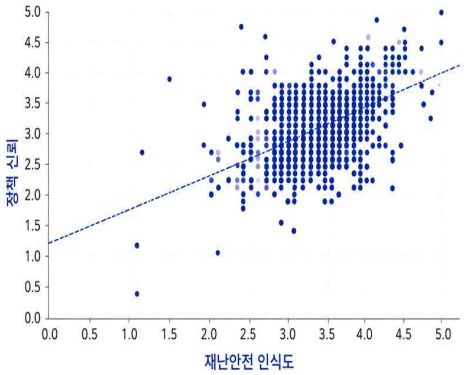
재난안전 인식도와 정책 신뢰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함

상관관계 요약

Pearson's r

0.534**

p<.01
N=1,000



재난안전 인식이 높을수록 정책과 대응체계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15

연구 결과

The Incheon Institute

정책 신뢰와 재난안전 실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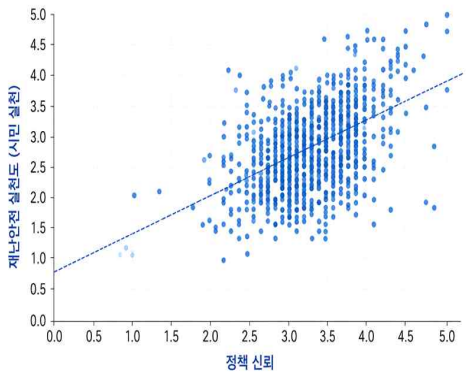
정책 신뢰와 재난안전 실천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함

상관관계 요약

Pearson's r

0.495**

p<.01
N=1,000



정책 신뢰가 높을수록 재난안전 실천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16

연구 결과

The Incheon Institute

정책 신뢰와 재난안전 실천도 기반 군·구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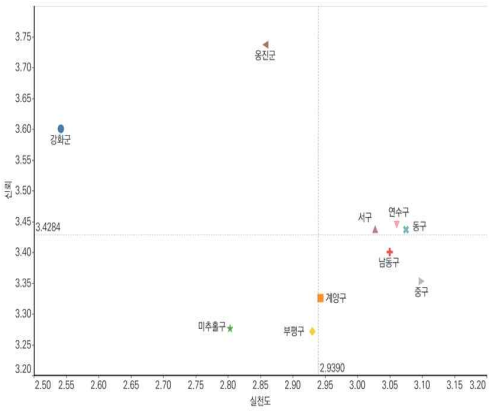
군·구별 정책 환경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 신뢰도와 시민 실천도를 기준으로 유형화를 수행함

유형화 기준

기준 변수
정책 신뢰도
재난안전 실천도

기준선
신뢰도 3.4284
실천도 2.9390

분석 단위
군·구 평균값



군·구별 정책 신뢰도와 시민 실천도는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며, 지역별 정책 환경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7

연구 결과

The Incheon Institute

군·구 유형별 특성과 정책적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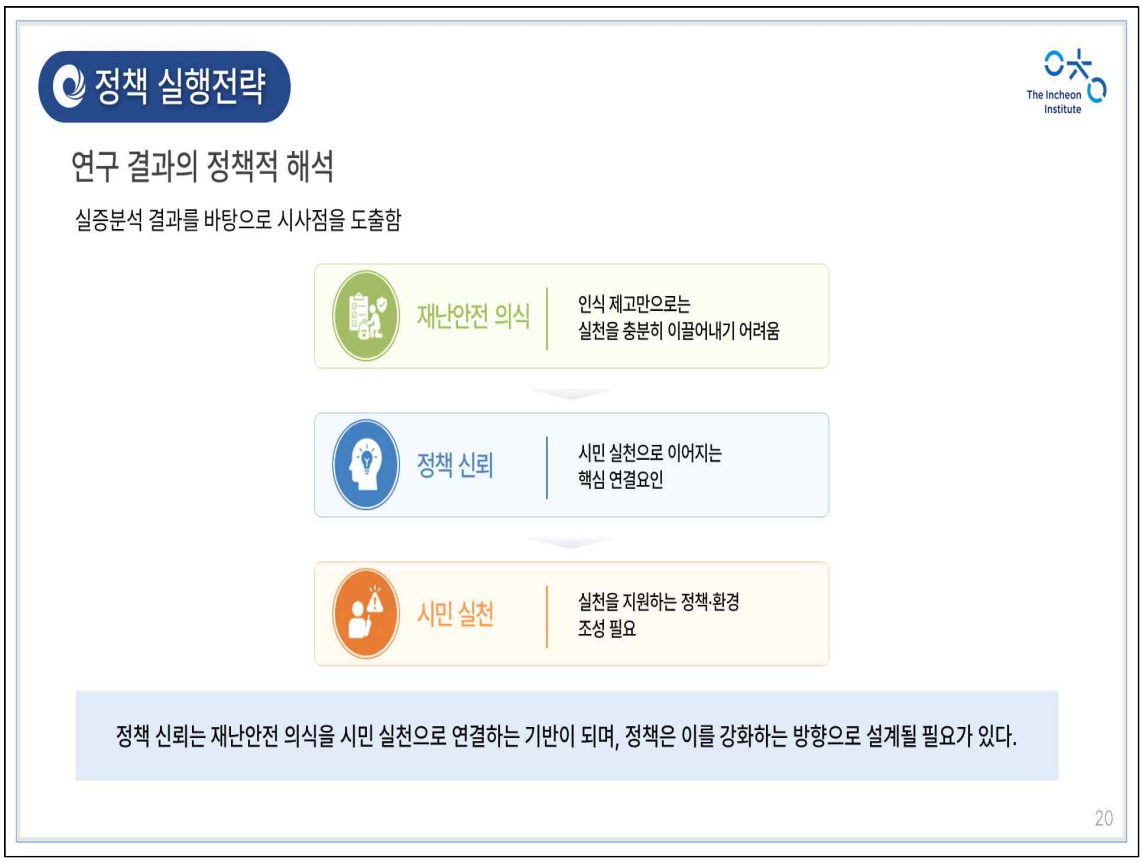
군·구는 정책 신뢰도와 시민 실천도 수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서로 다른 정책 과제를 가짐

유형	정책 신뢰	시민 실천	특징	정책 방향
고신뢰·고실천형 (동구, 연수구, 서구)	높음	높음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이 모두 높은 유형	정책의 유지 및 우수사례 확산, 취약 영역 보완 중심의 접근
고신뢰·저실천형 (강화군, 옹진군)	높음	낮음	정책 신뢰는 높지만 시민 실천이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유형	실행 장벽(비용, 접근성, 정보전달 등) 완화를 통한 실천 촉진
저신뢰·저실천형 (미추홀구, 부평구)	낮음	낮음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이 모두 낮은 유형	신뢰 회복, 인식 제고, 실천 촉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우선 개입 대상
저신뢰·고실천형 (중구, 남동구, 계양구)	낮음	높음	시민 실천은 높지만 정책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소통 강화, 실천-신뢰 연결 구조 보완

군·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의 기반이 된다.

18

IV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신뢰 기반 실행전략
정책 실행전략
all ways INCHEON


정책 실행전략
The Incheon Institute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해석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함
재난안전 의식
인식 제고만으로는
실천을 충분히 이끌어내기 어려움
정책 신뢰
시민 실천으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요인
시민 실천
실천을 지원하는 정책·환경
조성 필요
정책 신뢰는 재난안전 의식을 시민 실천으로 연결하는 기반이 되며, 정책은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20

정책 실행전략

The Incheon Institute

군·구 유형별 형성 요인 해석

군·구 유형의 차이는 지역별 사회·공간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I 고신뢰·고실천형
정책 수용 기반이 안정적인 지역
-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결속
- 정보·서비스 접근성 우수
- 정책 수용 기반이 비교적 안정적

II 고신뢰·저실천형
실행 여건의 제약이 큰 지역
- 고령화·분산 거주
-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제한
- 실행 가능성(지각된 통제감) 부족

III 저신뢰·저실천형
정책 체감과 공동체 기반이 취약한 지역
- 원도심 노후화·인구 밀집
- 반복된 위험 경험과 정책 피로
- 사회적 자본 약화

IV 저신뢰·고실천형
위험 경험 중심의 자발적 실천 지역
- 위험시설 인접
- 경험 기반의 자발적 대응
- 정책 과정에 대한 신뢰 부족

군·구 유형별 형성 요인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전략이 요구된다.

21

정책 실행전략

The Incheon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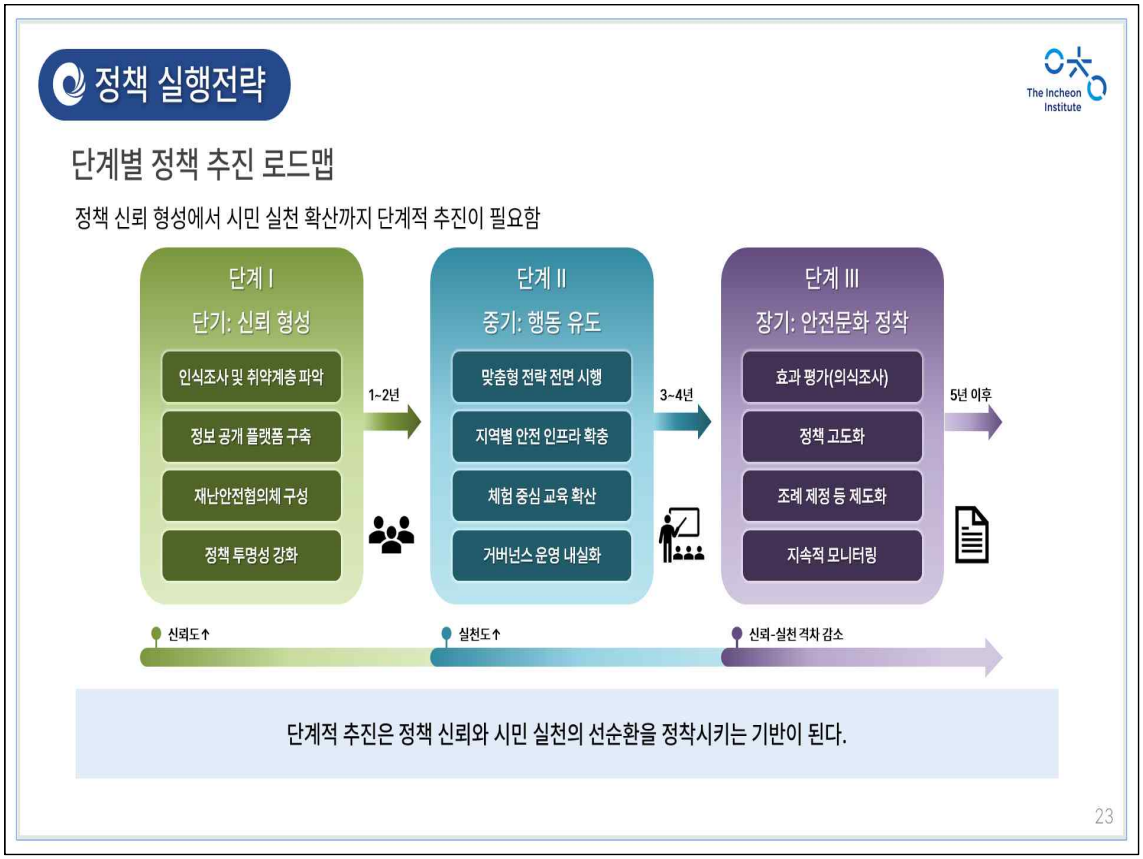
군·구 유형별 정책 실행전략

군·구별 정책 환경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

I 고신뢰·고실천형 (동구, 연수구, 서구)	II 고신뢰·저실천형 (강화군, 옹진군)	III 저신뢰·저실천형 (미추홀구, 부평구)	IV 저신뢰·고실천형 (중구, 남동구, 계양구)
핵심 목표	**핵심 목표**	**핵심 목표**	**핵심 목표**
우수사례 유지·확산	실행 장벽 완화	신뢰 회복과 실천 촉진	제도적 신뢰 강화
실행전략	**실행전략**	**실행전략**	**실행전략**
• 우수 정책접점 발굴 • 우수사례 공유·확산 • 지역 간 학습체계 구축	• 접근성·편의성 개선 • 참여 동기 강화 • 실천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정책 신뢰 회복 • 시민 참여 확대 • 실천 촉진 사업 추진	• 설명 책임 강화 • 참여 채널 확대 • 정책 소통 강화

맞춤형 실행전략은 정책 신뢰를 강화하고 시민 실천을 촉진하는 기반이 된다.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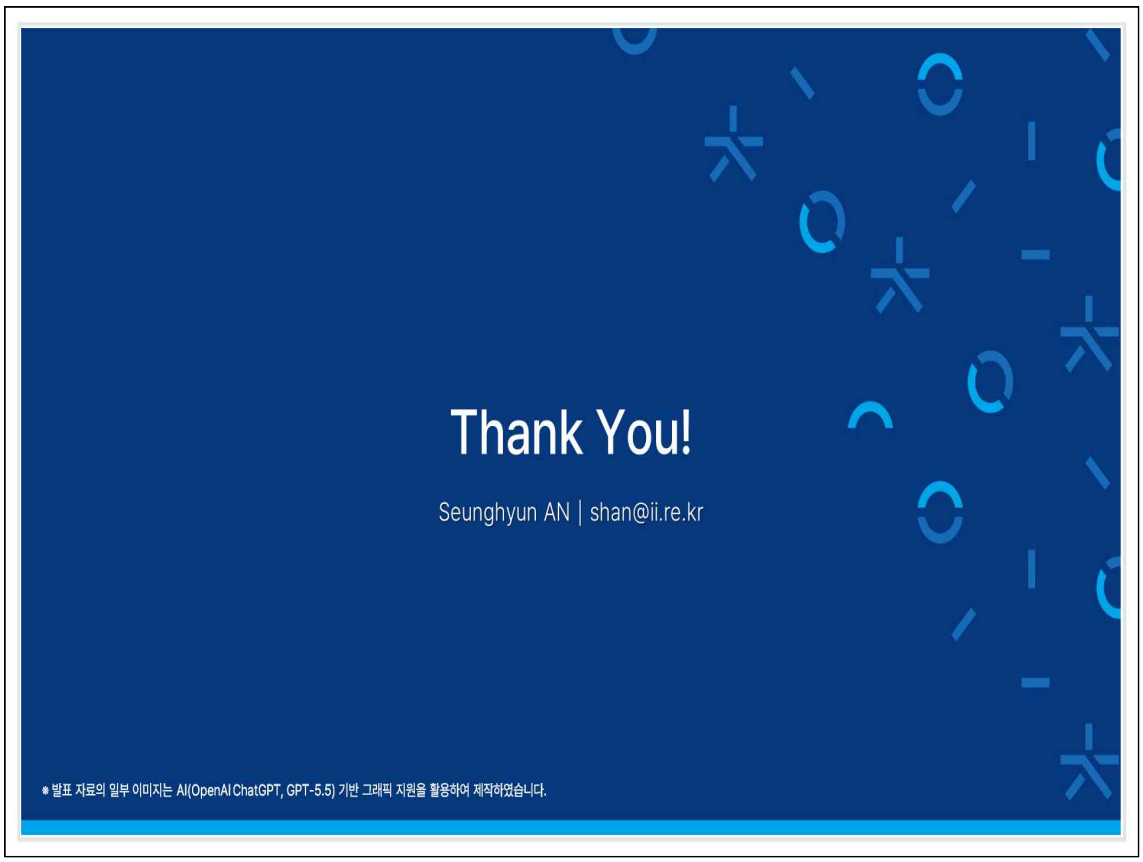

정책 실행전략
The Incheon Institute
단계별 정책 추진 로드맵
정책 신뢰 형성에서 시민 실천 확산까지 단계적 추진이 필요함
단계 I
단기: 신뢰 형성
인식조사 및 취약계층 파악
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
재난안전협의체 구성
정책 투명성 강화
1~2년
단계 II
중기: 행동 유도
맞춤형 전략 전면 시행
지역별 안전 인프라 확충
체험 중심 교육 확산
거버넌스 운영 내실화
3~4년
단계 III
장기: 안전문화 정착
효과 평가(의식조사)
정책 고도화
조례 제정 등 제도화
지속적 모니터링
5년 이후
신뢰도↑
실천도↑
신뢰-실천 격차 감소
단계적 추진은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의 선순환을 정착시키는 기반이 된다.
23

정책 실행전략
The Incheon Institute
정책 추진 우선순위
정책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함
높음
시급성
낮음
II 영역 : 중기 실행
실천 장벽 제거
I 영역 : 최우선 실행
신뢰 회복
IV 영역 : 장기 검토
제도화
III 영역 : 단기 실행
우수사례 확산
낮음
중요도
높음
추진 원칙
I 최우선 실행
신뢰 회복과 정책 소통 강화
II 중기 실행
실행 여건 개선과 실천 촉진
III 단기 실행
우수사례 공유·확산
IV 장기 검토
제도 기반 구축
정책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은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핵심 원칙이다.
24

V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신뢰 기반 실행전략
결론
all ways INCHEON

결론
The Incheon Institute
연구의 주요 시사점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1 재난안전 의식만으로는 실천이 어렵다.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의식 수준은 높은 편이었으나, 실제 대비 및 실천 행동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의식 개선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2 정책 신뢰가 시민 실천을 촉진한다.
정책 신뢰는 시민의 재난 대비 및 실천 행동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시민의 실천이 강화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3 지역별 정책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군·구별로 정책 신뢰, 실천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지역 특성과 정책 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4 신뢰 기반 거버넌스가 도시회복력을 강화한다.
행정, 시민, 지역사회, 유관 기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때,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도시의 재난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된다.
단순한 '정보의 부재'가 아닌 '정책 신뢰의 한계'와 '행동 여건의 제약'이 인식과 실천의 간극을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26

결론
The Incheon Institute
정책제언
정책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안함
1 시민 실천 중심 정책
정보 전달에서 체험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안전 체험 확대
일상 속 행동 중심 교육 강화
반복 학습 기반 실천 환경 조성
2 신뢰 기반 행정
투명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정책 추진 과정 공개
정책 정보의 투명성 강화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
3 취약계층 지원 강화
실천 여건을 지원하는 안전복지
인천형 안전돌봄 서비스 도입
취약지역 맞춤형 지원 확대
접근성 중심 안전 인프라 구축
4 주민주도 거버넌스
시민을 정책의 공동 설계자로
주민 참여형 리빙랩 확대
정책 공동 설계 기반 마련
참여형 안전 거버넌스 활성화
'안전 정보 전달' 중심에서 일상 속 '안전 경험 제공' 중심으로, '행정'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재난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27


Thank You!
Seunghyun AN | shan@ii.re.kr
* 발표 자료의 일부 이미지는 AI(OpenAI ChatGPT, GPT-5.5) 기반 그래픽 지원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仁川広域市の災害安全意識向上に向けた政策の信頼性に基づく実行戦略

発表者: アン・スンヒョン (仁川研究院 仁川安全都市研究センター)

2026. 08. 06.

THE INCHEON INSTITUTE

iSRC INCHEON SAFE CITY RESEARCH CENTER

CONTENTS

Ⅰ 研究背景

Ⅱ 災害安全意識と市民実践

Ⅲ 研究結果

Ⅳ 政策実行戦略

Ⅴ 結論

I
仁川広域市の災害安全意識向上に向けた
政策の信頼性に基づく実行戦略
研究背景
all ways INCHEON

研究背景
The Incheon Institute
ポリクライシス(複合危機)の時代における都市型災害
都市型災害は様々な危機が重なり合う方向に変化
気候変動
異常気象の増加
自然災害の大型化
都市化
人口・施設の密集により
災害の影響が拡大
社会的脆弱性
高齢化と社会・経済的
脆弱層の増加
老朽インフラ
施設の老朽化に伴う
事故の危険の増加
複合災害
様々な危機の
同時発生と相互作用
複合危機の時代においては、災害環境の変化に応じた新しいアプローチが必要である
4

研究背景

The Incheon Institute

伝統的な災害管理の限界

複合危機は伝統的な災害管理システムの限界を示す

伝統的な災害管理		複合危機の時代における災害管理
行政中心の対応 中央集権型の意思決定	シフト	**複合災害** 複合･多重危機の環境
事後対応中心 災害発生後の復旧		**相互連携の危機** 都市システムの構造的脆弱性
分断された対応システム 機関間の協力不足		**社会的対応** 政策の信頼性と市民参加
施設中心の管理 物理的な対応方法を優先		**地域社会のレジリエンス** 協力基盤の災害管理強化

複合危機の時代においては、伝統的な災害管理だけで効果的に対応するには限界がある

5

研究背景

The Incheon Institute

都市のレジリエンス中心の災害管理

災害管理は都市のレジリエンス中心に発展

災害管理	災害危機管理	都市のレジリエンス
対応中心	危機低減	適応力
行政中心	予防及び備え	協働ガバナンス
災害後の復旧	統合的計画	地域社会の参加

都市のレジリエンスは多様な主体との協力を通してより強化することができる

6

II
仁川広域市の災害安全意識向上に向けた
政策の信頼性に基づく実行戦略
災害安全意識と市民実践
all ways INCHEON

災害安全意識と市民実践
The Incheon Institute
意識と実践の隔たり
危機意識と予防活動の間には様々な障壁が存在する
危機意識
危険認知
災害安全意識
情報収集
心理的·社会的障壁
低い信頼
正常性バイアス
(normalcy bias)
危機疲れ
限定的な参加
予防行動
防災アクション
地域社会の参加
政策への受容性
危機意識を市民実践につなげるための政策的な取り組みが必要である
8

災害安全意識と市民実践

The Incheon Institute

行動メカニズム

災害時の対応行動は様々な心理的･社会的要因の影響を受ける

防災アクションは恐れだけでなく個人の対応力と信頼、共同体の力によって形成される

9

災害安全意識と市民実践

The Incheon Institute

政策の信頼性の役割

政策の信頼性は災害安全管理の様々な要素と相互作用する

政策の信頼性は政策受容性、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安全意識と有機的につながり、災害安全管理を強化させる

10

災害安全意識と市民実践
The Incheon Institute
核心メッセージ
情報の提供だけでは市民の行動変化を導き出すことが困難
情報だけで
市民の行動を
変えることはできない
信頼
参加
協力
レジリエントな都市は信頼、参加、協力を基盤とした市民実践を通して実現される
11

III
仁川広域市の災害安全意識向上に向けた
政策の信頼性に基づく実行戦略
研究結果
all ways INCHEON

研究結果

The Incheon Institute

2024 仁川市民の災害安全意識調査

災害安全に対する体感度、意識度、実践度、公共･社会的信頼度の領域に分けて総合的に調査

調査の概要

- 隔年で実施
- 仁川市民が対象 (15歳以上)
- 仁川研究院が遂行
- 2022年から実施

体感度

市民が日常生活と様々な災害類型で体感する安全レベル

- 居住地及び仁川市の安全度
- 災害類型別安全度 (自然災害、社会災害など)
- 安全体感の影響要因

意識度

市民が災害と安全について意識･理解しているレベル

- 危機意識
- 災害類型別の対応知識
- 備えの重要性に対する認識

実践度

市民が安全のために備え実践する行動レベル

- 家庭での防災アクション
- 教育及訓練に参加
- 情報の探索及び共有

公共及び社会的信頼度

市民の公共機関と社会的支援システムに対する信頼レベル

- 公共機関に対する信頼
- 災害対応力に対する信頼
- 脆弱階層への支援に対する信頼

調査結果は市民の政策受容性を把握し、地域社会を基盤とした
都市のレジリエンスと安全文化を強化させるための政策開発に活用される

13

研究結果

The Incheon Institute

意識と実践の隔たり：高い意識、低い実践

災害安全意識レベルは高かったが、実践度は相対的に低かった

災害安全意識レベル
市民の災害･安全意識レベル

3.489

1 2 3 4 5

意識-実践の隔たり

0.521 points

災害安全の実践度
市民の災害への備え及び実践度

2.968

1 2 3 4 5

意識と実践の隔たりの解消は、地域社会のレジリエンスと災害への備えを強化する核心課題である

14

研究結果

The Incheon Institute

災害安全意識レベルと政策の信頼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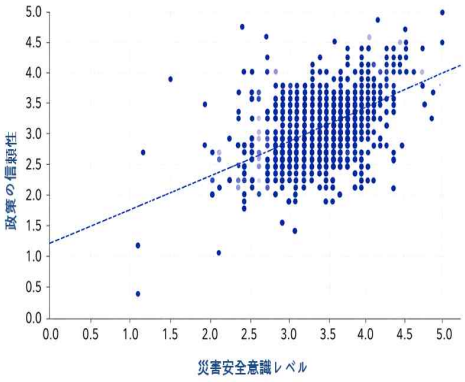
災難安全意識レベルと政策の信頼性の有意な相関関係を確認

相関関係の要約

Pearson's r

0.534**

p<.01
N=1,000



災害安全意識が高いほど政策と対応システムに対する信頼度も高くなる傾向がある

15

研究結果

The Incheon Institute

政策の信頼性と災害安全実践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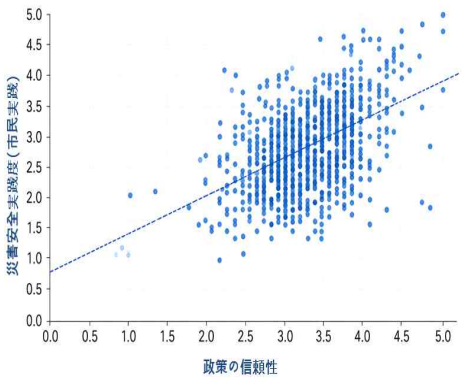
政策の信頼性と災難安全実践度の有意な相関関係を確認

相関関係の要約

Pearson's r

0.495**

p<.01
N=1,000



政策の信頼性が高いほど災害安全実践度も高くなる傾向がある

16

研究結果

The Incheon Institute

政策の信頼性と災害安全実践度を基盤にした郡・区の類型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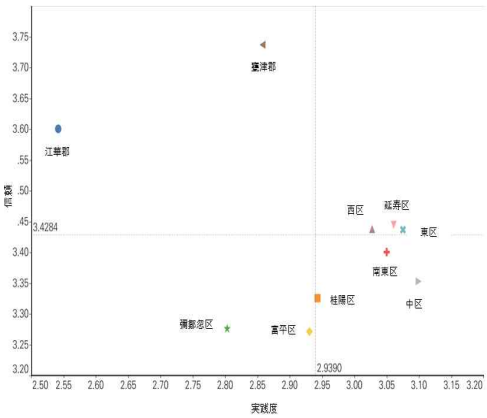
郡・区別の政策環境の違いを把握するために政策への信頼度と市民の実践度を基準に類型化を実施

類型化の基準

基準変数
政策への信頼度
災害安全実践度

基準線
信頼度 3.4284
実践度 2.9390

分析単位
郡･区の平均値



郡・区別の政策への信頼度と市民の実践度はそれぞれ異なる類型を示しており、
地域別政策環境の違い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17

研究結果

The Incheon Institute

郡･区の類型別特性と政策の方向

各郡･区は政策への信頼度と市民実践度によって４つの類型に区分され、互いに異なる政策課題を抱えている

類型	政策の信頼性	市民実践	特徴	政策方向
高信頼･高実践型 (東区、延寿区、西区)	高い	高い	政策の信頼性と市民実践がともに高い類型	政策の維持及び優秀事例の拡大、脆弱領域の補完を中心としたアプローチ
高信頼･低実践型 (江華郡、甕津郡)	高い	低い	政策の信頼性は高いが市民実践にまで十分につながっていない類型	「実行の壁」(費用、アクセシビリティ、情報伝達など)の緩和による実践促進
低信頼･低実践型 (彌鄒忽区、富平区)	低い	低い	政策の信頼性と市民実践がともに低い類型	信頼回復、意識向上、実践促進を統合的に推進する優先介入の対象
低信頼･高実践型 (中区、南東区、桂陽区)	低い	高い	市民実践は高いが政策の信頼性が相対的に低い類型	政策決定過程の透明性及び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強化、実践-信頼のつながりの構造を補完

郡･区の類型別特性を考慮し差別化を図った政策アプローチが災害安全管理における有効な基盤となる

18

IV
仁川広域市の災害安全意識向上に向けた
政策の信頼性に基づく実行戦略
政策実践戦略
all ways INCHEON

政策実践戦略
The Incheon Institute
研究結果の政策的解釈
実証分析の結果をもとに示唆点を導き出す
災害安全意識
意識の向上だけでは実践を
十分に導き出すことが困難
政策の信頼性
市民実践につながる
核心的な連結要因
市民実践
実践を支援する
政策·環境づくりが必要
政策の信頼性は災害安全意識を市民実践につなげる基盤となり、
政策はこれを強化する方向で講じる必要がある
20

政策実践戦略

The Incheon Institute

郡･区の類型別形成要因の解釈

郡･区の類型の違いは各地域の社会･空間的特性が複合的に作用した結果と解釈できる

I 高信頼･高実践型
政策受容基盤が安定的な地域
- 社会的資本と共同体の結束
- 情報･サービスへのアクセスが優秀
- 政策受容基盤が比較的安定

II 高信頼･低実践型
実践環境の制約が大きい地域
- 高齢化･分散居住
- 物理的･情報的アクセスの制限
- 実行可能性(知覚されたコントロール)不足

III 低信頼･低実践型
政策体感と共同体基盤が脆弱な地域
- 原都心の老朽化･人口密集
- 度重なる危険体験と政策疲れ
- 社会的資本の弱化

IV 低信頼･高実践型
危険体験中心の自発的実践地域
- 危険施設が隣接
- 経験基盤の自発的対応
- 政策過程に対する信頼不足

郡･区の類型別形成要因を考慮し差別化を図った政策戦略が求められる

21

政策実行戦略

The Incheon Institute

郡･区の類型別の政策実行戦略

各郡･区の政策環境の違いを考慮し、個々の特性に応じた戦略が必要

I 高信頼･高実践型
(東区、延寿区、西区)

核心目標
優秀事例の維持･拡大

実行戦略
- 優れた政策接点を発掘
- 優秀事例の共有･拡大
- 地域間学習システムの構築

II 高信頼･低実践型
(江華郡、甕津郡)

核心目標
「実行の壁」の緩和

実行戦略
- アクセシビリティ･利便性の改善
- 参加動機の強化
- 実践支援プログラムの拡大

III 低信頼･低実践型
(弥鄒忽区、富平区)

核心目標
信頼回復と実践促進

実行戦略
- 政策の信頼性の回復
- 市民参加の拡大
- 実践促進事業の推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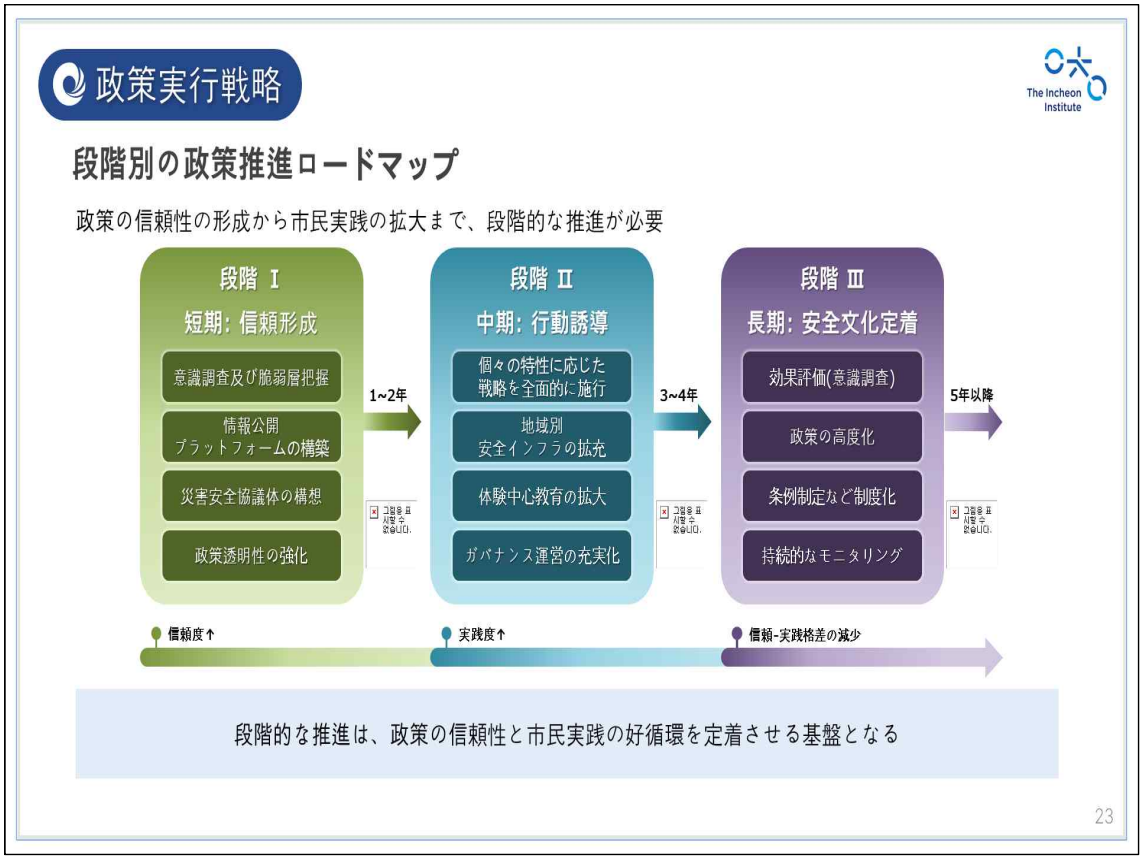
IV 低信頼･高実践型
(中区、南東区、桂陽区)

核心目標
制度的信頼の強化

実行戦略
- 説明責任の強化
- 参加チャンネルの拡大
- 政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強化

個々の地域の特性に応じた実行戦略は政策の信頼性を強化し、市民実践を促進する基盤となる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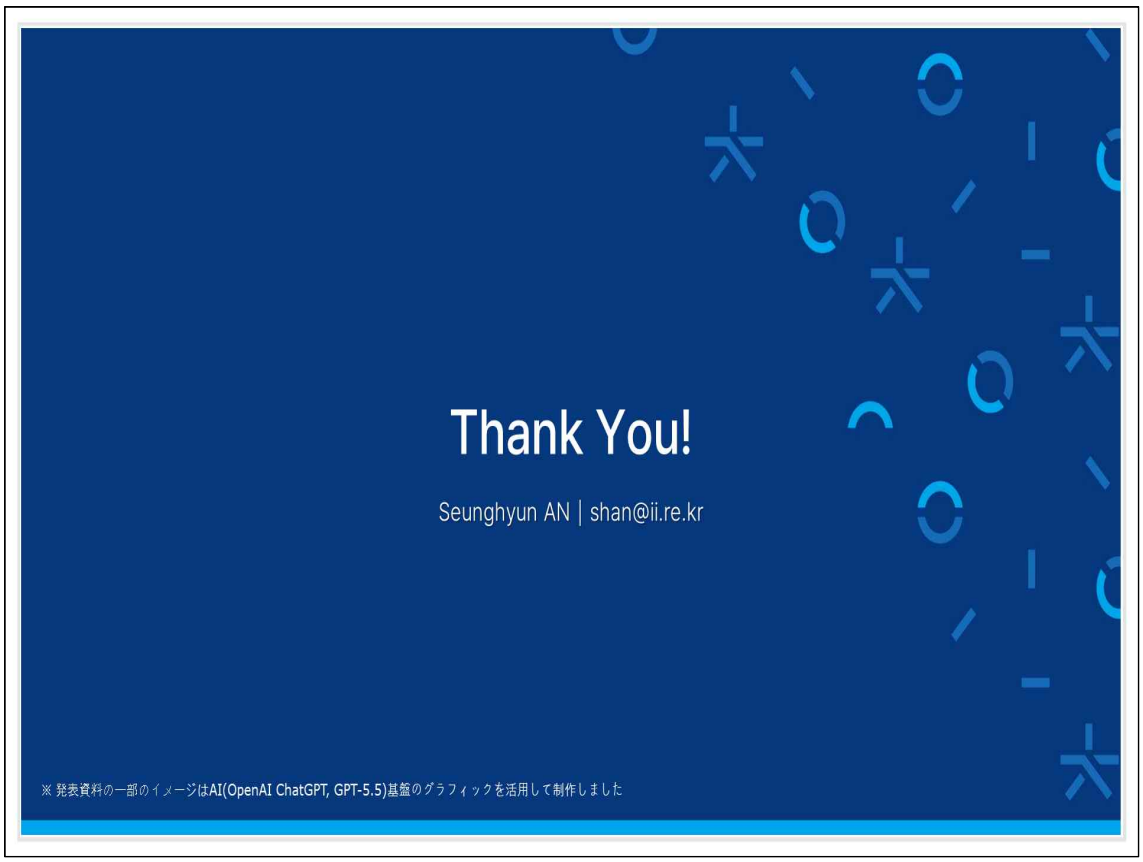

政策実行戦略
The Incheon Institute
段階別の政策推進ロードマップ
政策の信頼性の形成から市民実践の拡大まで、段階的な推進が必要
段階 Ⅰ
短期: 信頼形成
意識調査及び脆弱層把握
情報公開 プラットフォームの構築
災害安全協議体の構想
政策透明性の強化
1~2年
段階 Ⅱ
中期: 行動誘導
個々の特性に応じた戦略を全面的に施行
地域別 安全インフラの拡充
体験中心教育の拡大
ガバナンス運営の充実化
3~4年
段階 Ⅲ
長期: 安全文化定着
効果評価(意識調査)
政策の高度化
条例制定など制度化
持続的なモニタリング
5年以降
信頼度↑
実践度↑
信頼-実践格差の減少
段階的な推進は、政策の信頼性と市民実践の好循環を定着させる基盤となる
23

政策実行戦略
The Incheon Institute
政策推進における優先順位
政策重要度と緊急性を考慮した段階的な推進が必要
緊急性
高い
低い
重要度
低い
高い
Ⅱ領域：中期実行
「実践の壁」除去
Ⅰ領域：最優先実行
信頼回復
Ⅳ領域：長期検討
制度化
Ⅲ領域：短期実行
優秀事例の拡大
推進原則
Ⅰ 最優先実行
信頼回復と
政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強化
Ⅱ 中期実行
実行環境の改善と実践促進
Ⅲ 短期実行
優秀事例の共有·拡大
Ⅳ 長期検討
制度基盤の構築
政策の重要度と緊急性を考慮した優先順位の設定は、効果的な政策推進の核心的原則である
24

V
仁川広域市の災害安全意識向上に向けた
政策の信頼性に基づく実行戦略
結論
all ways INCHEON

結論
The Incheon Institute
研究の主な示唆点
仁川市民の災害安全意識調査と実証分析を通して確認した重要な示唆点は以下の通りである
1 災害安全意識だけでは実践が難しい
仁川市民の災害安全意識レベルは高い方であるが、実際の備え及び実践行動は相対的に低い結果を示した。これは意識の改善が直ちに行動につながらないことを示唆する。
2 政策の信頼性が市民実践を促進する
政策の信頼性は市民の災害への備え及び実践行動と有意な正の相関関係を示した。機関に対する信頼性が高いほど市民の実践が強化される傾向があることを確認した。
3 地域別の政策環境を反映したカスタマイズのアプローチが必要である
都・区別に政策の信頼性、実践度が異なる結果を示した。地域の特性と政策環境を考慮し差別化を図ったアプローチをするときに、政策効果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
4 信頼基盤のガバナンスが都市のレジリエンスを強化させる
行政、市民、地域社会、関連機関が信頼に基づいて協力するとき、政策の一貫性と実行力が高まり、究極的には都市の災害対応力とレジリエンスが強化される。
単純な「情報の不在」ではなく「政策の信頼性の限界」と「行動環境の制約」が
意識と実践の隔たりを生み出す主な要因である
26

結論
The Incheon Institute
政策提言
政策の信頼性を基盤に市民実践を促進するため、仁川広域市が推進すべき災害安全政策の発展方向を提案
1 市民実践中心の政策
情報伝達から体験中心に
生活密着型の安全体験の拡大
日常生活における行動中心教育の強化
反復学習基盤の実践環境づくり
2 信頼基盤の行政
透明な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
政策推進過程の公開
政策情報の透明性強化
持続的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システムの構築
3 脆弱層に対する支援強化
実践環境を支援する安全福祉
仁川型安全ケアサービスの導入
脆弱な地域の特性に応じた支援の拡大
アクセシビリティ中心の安全インフラ構築
4 住民主導のガバナンス
市民を政策の共同設計者に
住民参加型リビングラボの拡大
政策の共同設計基盤の構築
参加型安全ガバナンスの活性化
「安全情報の伝達」中心から日常生活における「安全体験の提供」中心に、
「行政」中心から「市民」中心に、災害安全政策のパラダイムをシフトさせる必要がある
27


Thank You!
Seunghyun AN | shan@ii.re.kr
※ 発表資料の一部のイメージはAI(OpenAI ChatGPT, GPT-5.5)基盤のグラフィックを活用して制作しました

≫ 발표 4

北九州・小倉の歴史的経験を通じた地域の安全文化形成に関する考察

기타큐슈·고쿠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지역 안전문화 형성에 관한 고찰

李乘漢(이승한, Lee Seung Han)

北九州市立大学 地域戦略研究所 特任教員

기타큐슈시립대학교 지역전략연구소 특임교원

第19回北九州市立大学・仁川研究院共同研究発表会
제19회 인천연구원－기타큐슈시립대학 공동연구발표회

北九州・小倉の歴史的経験を通じた地域の安全文化形成に関する考察

北九州市立大学 地域戦略研究所 李乗漢

報告の概要

はじめに

Ⅰ　「潜在的被爆地」小倉

Ⅱ　非核規範の地域的展開

Ⅲ　平和・非核都市の議論

Ⅳ　北九州の安全文化形成と平和行政

おわりに

北九州・小倉の歴史的経験を通じた地域の安全文化形成に関する考察

はじめに

・背景と目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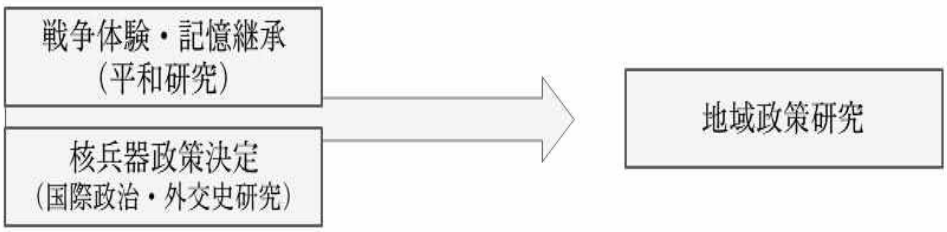
- 北九州市の平和行政とその市民意識は、1945年に長崎原爆の投下予定地であった小倉の歴史的経験が背景と言える。全国的に拡散した平和行政の流れを踏まえ、北九州市議会で行われた非核平和都市宣言をめぐる議論と共に、同宣言の成立過程を検討する。

- 北九州市平和のまちミュージアムをはじめとする平和行政の事例を通じて、歴史的経験が市民意識や地域社会の安全文化形成にどのように反映されてきたのかを考察する。そして、地域レベルにおける安全文化の形成過程を理解するための視座を提示し、その政策的意義と今後の課題を見出す。

北九州・小倉の歴史的経験を通じた地域の安全文化形成に関する考察

はじめに

・研究の位置付けと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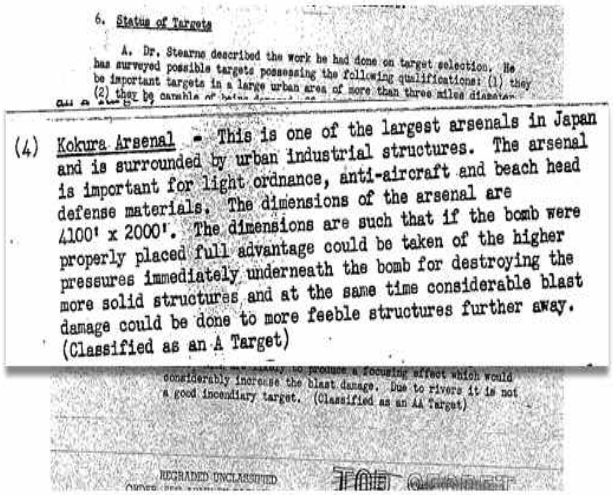


→ 市議会の会議録、自治体の行政文書（企画、評価、検討資料等）、
米・公文書を精査、関係者への聞き取り調査
→ 北九州・小倉の歴史的経験をめぐる基礎的政策研究として、
本考察を通じて事例研究・レジーム研究・比較研究へ拡張

政策決定過程と多層的アクター分析を通じて、地域レベルの政策的示唆を検討

Ⅰ「潜在的被爆地」小倉

・核兵器投下の政策決定（1945年）



6. Status of Targets

A. Dr. Stearns described the work he had done on target selection. He has surveyed possible targets possessing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1) they be important targets in a large urban area of more than three miles diameter

(4) Kokura Arsenal - This is one of the largest arsenals in Japan and is surrounded by urban industrial structures. The arsenal is important for light ordnance, anti-aircraft and beach head defense materials. The dimensions of the arsenal are 4100' x 2000'. The dimensions are such that if the bomb were properly placed full advantage could be taken of the higher pressures immediately underneath the bomb for destroying the more solid structures and at the same time considerable blast damage could be done to more feeble structures further away. (Classified as an A Target)

considerably increase the blast damage. Due to rivers it is not a good incendiary target. (Classified as an AA target)

REGRADED UNCLASSIFIED

■AA級目標
・京都
・広島

■A級目標
・横浜
・小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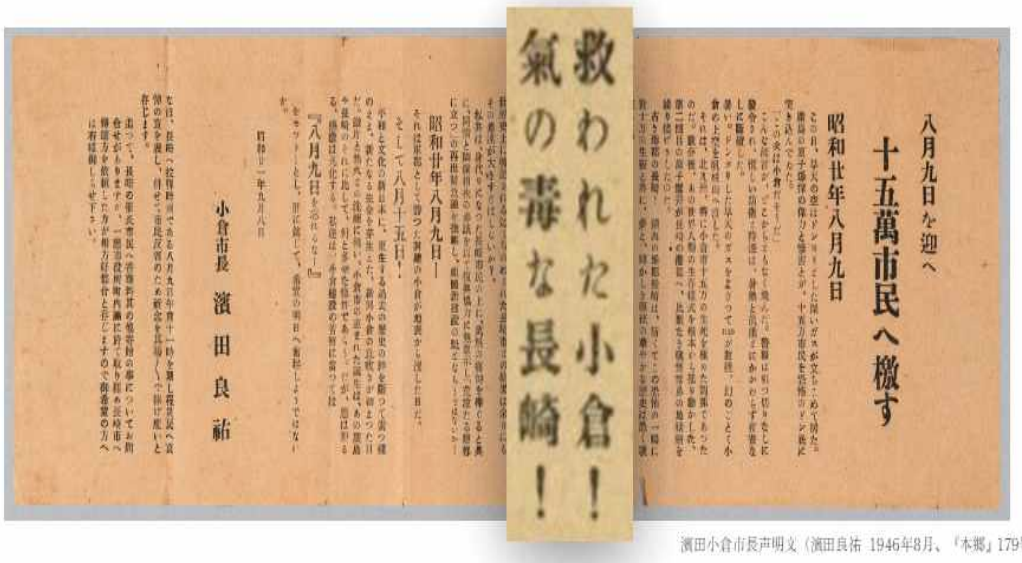
■B級目標
・新潟

Memorandum from Major J. A. Derry and Dr. N.F. Ramsey to General L.R. Groves, "Summary of Target Committee Meetings on 10 and 11 May 1945," May 12, 1945, Top Secret, NSA.

北九州・小倉の歴史的経験を通じた地域の安全文化形成に関する考察

Ⅰ「潜在的被爆地」小倉

・「救われた小倉！気の毒な長崎！」（1946年）



救われた小倉！
氣の毒な長崎！

八月九日を迎へ

十五萬市民へ檄す

昭和廿年八月九日

昭和廿年八月九日—

そして八月十五日！

小倉市長　濱田良祐

濱田小倉市長声明文（濱田良祐 1946年8月、『本郷』179号）

北九州・小倉の歴史的経験を通じた地域の安全文化形成に関する考察

II 非核規範の地域的展開

・「非核三原則」と「核持ち込み」の拡大

衆院予算委員会で答弁する佐藤栄作首相（時事通信社、1967年12月11日）

佐世保港周辺の放射線量を確認する佐世保市職員（梅林2005:185、2004年11月19日）
訓練で被ばく線量の検査を受ける地域住民（西日本新聞、2023年12月21日）

→ 地域の安全文化として展開
→ 原子力発電所の有事による原子力防災訓練とは相違
尚、当該「原子力空母」及び「原子力潜水艦」は核兵器搭載とは相違

※ 佐世保市は、「市に寄港する米原子力艦」を対象としている。「原子力艦の原子力災害対策について」佐世保市、2026年6月5日。

北九州・小倉の歴史的経験を通じた地域の安全文化形成に関する考察

II 非核規範の地域的展開

・神戸市議会の寄港拒否決議（非核神戸方式）

■ 平和都市宣言（1962年）

1974年のいわゆる「ラロック証言」
→ 米・核搭載軍艦、寄港する際に核兵器を降ろさないとの証言

■ 核兵器積載艦艇の神戸港入港拒否に関する決議（1975年）

神戸港は、その入港船舶数及び取扱い貨物量からみても、世界の代表的な国際商業貿易港である。（中略）この港に核兵器が持ちこまれることがあるとすれば、港湾機能の阻害はもとより、市民の不安と混乱は想像に難くないものがある。よって神戸市会は核兵器を積載した艦艇の神戸港入港を一切拒否するものである。

■ 非核平和都市に関する決議（1983年）

神戸市「平和関連決議」（2023年8月29日、
https://www.city.kobe.lg.jp/a14881/bosai/disaster/heiwa/heiwa01.html）

Ⅲ 平和・非核都市の議論

・北九州市議会の議論

1981年5月、山田弾薬庫（山田緑地）の核持ち込み疑惑

- 北九州市議会 昭和58年9月定例会「非核都市宣言について」（1983年）
  第32号「非核・平和都市宣言について」可決
- 北九州市議会 平成14年12月 定例会 第4回（2002年）
  自治体の長として、防衛に関することは、国の専管事項であるという考えは変わっておりませんが、（中略）非核平和都市宣言についてでございますが、この宣言は、もう何度もこの本会議でお答えを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が、市民に緊急、若しくは身近で実効を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等に限定すべきである・・・

2009年4月、オバマ米大統領「プラハ演説」

- 市議会「北九州市非核平和都市宣言について」可決（2009年12月）
- 北九州市、非核平和都市宣言（2010年2月）

「昭和五十八年北九州市議会会議録」他、会議録検索システムを参照。

北九州・小倉の歴史的経験を通じた地域の安全文化形成に関する考察

Ⅲ 平和・非核都市の議論

・北九州市非核平和都市宣言（2010年2月10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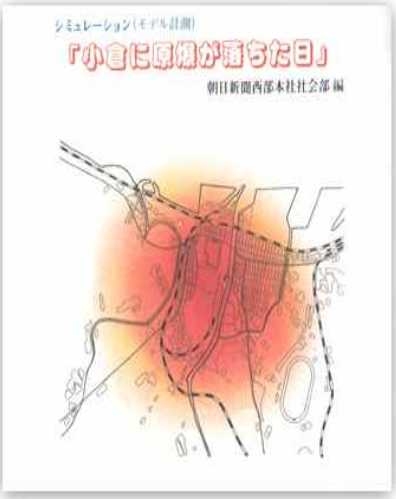
非核平和都市宣言記念式典（提供：北九州市）

嘉代子桜植樹式（提供：北九州市）

北九州・小倉の歴史的経験を通じた地域の安全文化形成に関する考察

Ⅳ 北九州の安全文化形成と平和行政

・歴史的経験を背景とした地域の安全文化形成（記憶の継承）



北九州・小倉の歴史的経験を通じた地域の安全文化形成に関する考察

Ⅳ 北九州の安全文化形成と平和行政

・歴史的経験を背景とした地域の安全文化形成（記憶の継承）

「いやー、おたくに落ちなくてよかったですなあ！」
藤尾(2019), p.12.

「少なくとも行政は、昔から現在に至るまで長崎被曝に関して非常に重視した姿勢を示している。（中略）どんなに行政が音頭をとっても、市民全体としては反応が鈍いようだ。」
藤尾(2019), p.18.

Ⅳ 北九州の安全文化形成と平和行政

・自治体の方向性と意義

■ 施策名：平和の尊さへの理解の促進

基本計画	柱　きずなを結ぶ
	大項目　すべての市民が人権を尊重され自分らしく暮らせるまちづくり
	取組みの方針　平和への取組みの推進

■ 平成21年度（2009）～ 令和5年度（2023）
- 局施策評価表
- PDCAチェックシート（実績評価）
- 行政評価の取組結果

本市の平和に対する基本的姿勢を示す「北九州市非核平和都市宣言」を広く市民に伝える

H28年度施策の方向性（平成26年度行政評価の取組結果、総務企画局）

2009	戦没者等慰霊事業, 戦時資料展示コーナー管理運営事業
2010	北九州市非核平和都市宣言推進事業
2011	北九州市非核平和都市宣言推進事業
2012	北九州市非核平和都市宣言推進事業
2013	北九州市非核平和都市宣言推進事業
2014	北九州市非核平和都市宣言推進事業
2015	戦後70年・平和推進事業
2016	非核・平和推進事業
2017	(仮称)平和資料館建設事業, 非核・平和推進事業
2018	(仮称)平和資料館建設事業, 非核・平和推進事業
2019	(仮称)平和資料館建設事業, 非核・平和推進事業
2020	(仮称)平和資料館建設事業, 非核・平和推進事業
2021	(仮称)平和資料館建設事業, 非核・平和推進事業
2022	平和のまちミュージアム管理・運営事業, 非核・平和推進事業
2023	平和のまちミュージアム管理・運営事業, 非核・平和推進事業

北九州・小倉の歴史的経験を通じた地域の安全文化形成に関する考察

Ⅳ 北九州の安全文化形成と平和行政

・北九州市の中心地に平和のまちミュージアム（平和資料館）を建設

■（仮称）平和資料館の建設表明（平成29年2月本会議・市長答弁）2017年

・・・長崎原爆の第一投下目標であった歴史的背景等を踏まえ、（中略）検討した結果、勝山公園内での設置を示した。

・・・（懇話会では）原爆の投下予定地は他にもあったが、実際に爆撃機が来て、投下しなかったのは北九州市だけであること（中略）勝山公園内での建設が望ましいとしている。

戦時資料展示コーナー（総務市民・地域振興）
戦没者追悼式（保福・総務）
原爆犠牲者慰霊平和祈念式典（保福・総務）
慰霊塔等管理（保福・総務）
ながさき原爆展（総務市民・総務課）
「かよこ桜」植樹式（総務市民・総務課）

「本市の平和事業」、総務市民局総務課

2022年 →

平和のまちミュージアム管理・運営事業
非核・平和推進事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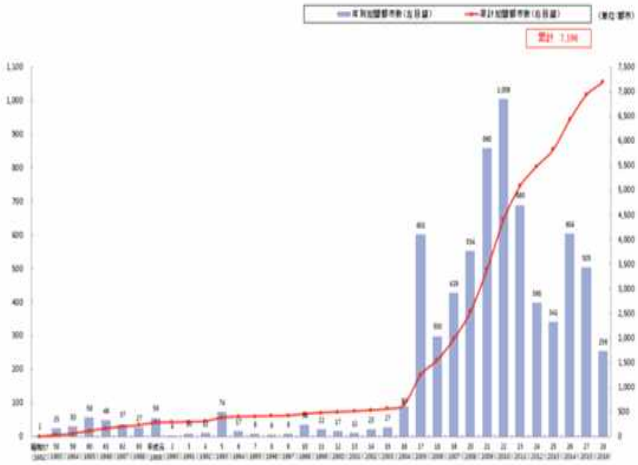
■ 非核平和都市宣言以降の主な事業展開
- 植樹事業拡大　- 青少年派遣事業拡大
- 全市民センター等に宣言文パネル掲示
- 平和首長会議・非核宣言自治体協議会加盟

※ 仁川、2019年に加盟

北九州・小倉の歴史的経験を通じた地域の安全文化形成に関する考察

Ⅳ 北九州の安全文化形成と平和行政

・地域レベル（地方自治体）での政策化
・全国1,788自治体のうち、1,674自治体（約93%）が宣言。
・国際的にも、「平和首長会議（元・平和市長会議）」加盟が急増。



非核宣言自治体数		
都道府県	合計	42自治体
政令指定都市	合計	20自治体
市（政令市以外）	合計	758自治体
町	合計	671自治体
村	合計	160自治体
	総計	1,674自治体

北九州・小倉の歴史的経験を通じた地域の安全文化形成に関する考察

Ⅳ 北九州の安全文化形成と平和行政

・平和行政の課題

N=37人

項　　目	回答数	割合
① 人権教育・人権啓発活動	5	13.5%
② 平和教育・平和啓発活動	12	32.4%
③ 外国人との共生社会の実現	6	16.2%
④ ジェンダー平等社会の理解の促進	11	29.7%
⑤ その他		
無回答		

「何をもって市民の平和の尊さへの理解が進んだのかを判断することは極めて難しい施策です。」
（平成21年度実施施策・最施策評価表）

◆ 多様性を認め合うまちづくりについて、

1位	平和教育・平和啓発活動	32.4%
2位	ジェンダー平等社会の理解の促進	29.7%
3位	外国人との共生社会の実現	16.2%

「多様性を認め合うまちづくり」への回答（令和6年度市民意識調査・北九州市政に期待すること）

北九州・小倉の歴史的経験を通じた地域の安全文化形成に関する考察

Ⅳ 北九州の安全文化形成と平和行政

・「新たなビジョン」に対する意見募集（2023年12月）

■意見の概要（28番）

北九州市は非核平和都市宣言の認識に基づく記載があるべき。これまでの「基本構想」でも、（中略）北九州市としてのスタンスを明確にしている。

■市の考え方

ご意見にある平和に関する記述については、これまでの基本構想・基本計画では基本計画の分野別の「施策」の中で提示していますが、新たなビジョンは「政策」レベルまでの記述としています。

新たなビジョン（北九州市基本構想・基本計画）（素案）に対する市民意見の概要および市の考え方、北九州市政策局政策部政策課

北九州・小倉の歴史的経験を通じた地域の安全文化形成に関する考察

おわりに

・課題①「国の専管事項」と地域の安全文化形成

外務省で日米密約調査チームの責任者から話を聞く岡田外相、2009年9月（朝日新聞）

核密約など認定

有識者委報告書

「政府のうそ」明白に

外相 歴代首相らの責任指摘

トヨタ

「電子制御に問

反証実験を

「迷惑掛け

日米核密約問題に関する報道、2010年3月（長崎新聞）

→米・NCND (Neither confirm nor deny) 政策と外交・安全保障政策上の課題

→地域レベル（行政・市民）では、どのように安全文化を形成し、都市像を目指すか

北九州・小倉の歴史的経験を通じた地域の安全文化形成に関する考察

おわりに

・課題② 小倉の歴史的経験をどう結び付けるか

平和の大切さを考えるコース

1 勝山公園

学びと遊びの施設が集結、北九州市のシンボル公園

2 北九州市平和のまちミュージアム

実物資料と最新の映像・音響技術を活用した展示

北九州市情報発信強化委員会

本学地域活動「みらいピースプロジェクト」、北九州市立大学地域共生教育センター・西日本新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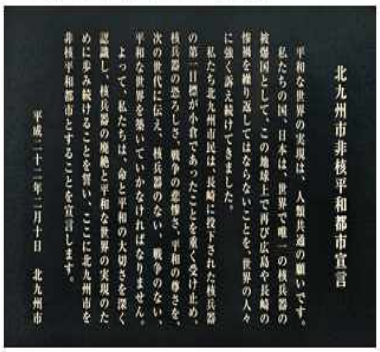
→「小倉が8月9日の原爆投下第一目標地だった」という歴史的背景から、歴史・平和・教育・観光など、地域のキーワードと結びつけた取り組み

北九州・小倉の歴史的経験を通じた地域の安全文化形成に関する考察

おわりに

・市役所のロビー左右に展示されている「長崎の鐘」と非核平和都市宣言文

北九州市役所のロビー



北九州市非核平和都市宣言

平和な世界の実現は、人類共通の願いです。

私たちの国、日本は、世界で唯一の核兵器の被爆国として、この地球上で再び広島や長崎の惨禍を繰り返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世界の人々に強く訴え続けてきました。

私たち北九州市民は、長崎に投下された核兵器の第一目標が小倉であったことを重く受け止め、核兵器の恐ろしさ、戦争の悲惨さ、平和の尊さを、次の世代に伝え、核兵器のない、戦争のない、平和な世界を築い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よって、私たちは、命と平和の大切さを深く認識し、核兵器の廃絶と平和な世界の実現のために歩み続けることを誓い、ここに北九州市を非核平和都市とすることを宣言します。

平成二十二年二月十日　北九州市

北九州市役所の「北九州市非核平和都市宣言」宣言文

→ 平成24年度（2012年）「北九州市非核平和都市宣言推進事業」成果の一部。

小倉の歴史的経験は、北九州市の非核・平和行政と地域の安全文化形成を支える重要な政策資源として位置付けられる。

本報告は、市民・行政・国家・国際社会から多層的アクターの分析を通じて、持続可能な平和行政と地域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に関する政策的示唆を導くための基礎的視座を提示した。

第19回北九州市立大学・仁川研究院共同研究発表会
제19회 인천연구원 - 기타큐슈시립대학 공동연구발표회

기타큐슈·고쿠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지역 안전문화 형성에 관한 고찰

기타큐슈시립대학 지역전략연구소 이승한

보고 개요

서론

Ⅰ '잠재적 피폭지' 고쿠라

Ⅱ 비핵 규범의 지역적 전개

Ⅲ 평화・비핵 도시 관련 논의

Ⅳ 기타큐슈의 안전문화 형성과 평화 행정

결론

기타큐슈·고쿠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지역 안전문화 형성에 관한 고찰

서론

·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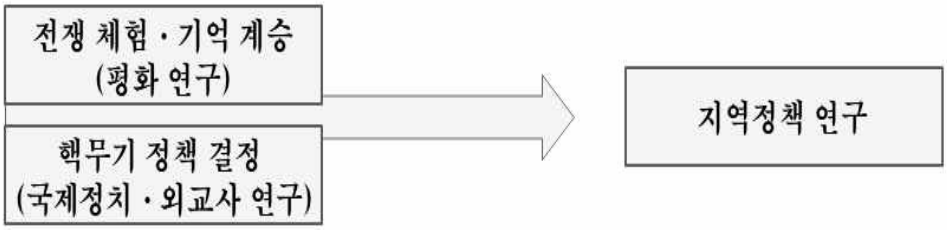
- 기타큐슈시의 평화 행정과 시민 의식은 1945년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투하 예정지였던 고쿠라의 역사적 경험이 그 배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평화 행정 흐름을 바탕으로 기타큐슈시의회에서 진행된 비핵평화도시 선언을 둘러싼 논의와 함께 해당 선언의 성립 과정을 검토한다.

- 기타큐슈시 평화의 도시 뮤지엄을 비롯한 평화행정 사례를 통해 역사적 경험이 시민의식과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형성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를 고찰한다. 또한 지역 차원의 안전문화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을 제시하고 그 정책적 의의와 향후 과제를 도출한다.

기타큐슈·고쿠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지역 안전문화 형성에 관한 고찰

서론

· 연구의 학문적 위치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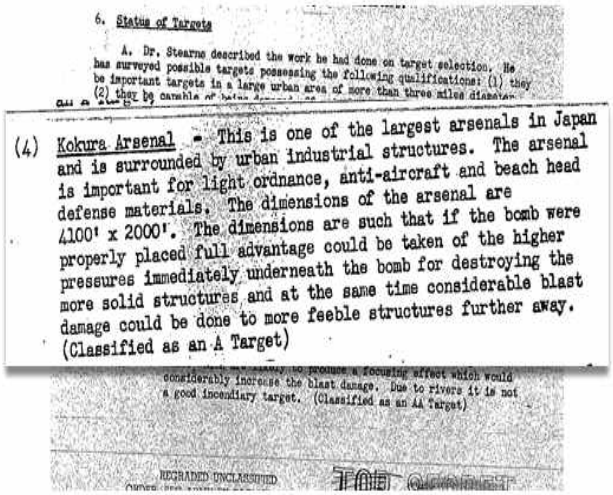


→ 시의회 회의록, 지방자치단체 행정문서(기획, 평가, 검토 자료 등)
미국 공문서 면밀 검토, 관계자 면담조사
→ 기타큐슈 · 고쿠라의 역사적 경험에 관한 기초 정책연구로서
본 고찰을 바탕으로 사례 연구·례짐 연구 · 비교 연구로 확장

정책 결정 과정과 다층적 행위자 분석을 통해 지역 차원의 정책적 시사점 검토

Ⅰ '잠재적 피폭지' 고쿠라

· 핵무기 투하에 관한 정책 결정(1945년)


6. Status of Targets

A. Dr. Stearns described the work he had done on target selection. He has surveyed possible targets possessing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1) they be important targets in a large urban area of more than three miles diameter

(4) Kokura Arsenal - This is one of the largest arsenals in Japan and is surrounded by urban industrial structures. The arsenal is important for light ordnance, anti-aircraft and beach head defense materials. The dimensions of the arsenal are 4100' x 2000'. The dimensions are such that if the bomb were properly placed full advantage could be taken of the higher pressures immediately underneath the bomb for destroying the more solid structures and at the same time considerable blast damage could be done to more feeble structures further away. (Classified as an A Target)

considerably increase the blast damage. Due to rivers it is not a good incendiary target. (Classified as an AA target)

REGRADED UNCLASSIFIED

■AA급 목표
· 교토
· 히로시마

■A급 목표
· 요코하마
· 고쿠라

■B급 목표
· 니가타

Memorandum from Major J. A. Derry and Dr. N.F. Ramsey to General L.R. Groves, "Summary of Target Committee Meetings on 10 and 11 May 1945," May 12, 1945, Top Secret, NSA.

기타큐슈·고쿠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지역 안전문화 형성에 관한 고찰

Ⅰ '잠재적 피폭지' 고쿠라

· '원폭 면한 고쿠라! 안타까운 나가사키!' (1946년)

八月九日を迎へ
十五萬市民へ檄す
昭和廿年八月九日

救われた小倉！
氣の毒な長崎！

小倉市長　濱田良祐

하마다 고쿠라시장 성명문(하마다 료스케, 1946년 8월, 『혼고』 제179호)

기타큐슈·고쿠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지역 안전문화 형성에 관한 고찰

Ⅱ 비핵 규범의 지역적 전개

· '비핵 3원칙'과 '핵 반입 논의' 확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답변하는 사토 에이사쿠 총리(지지통신사, 1967년 12월 11일) 사세보항 주변의 방사선량을 확인하는 사세보시 직원(우메바야시 2005: 135, 2004년 11월 19일)
훈련에서 피폭선량 검사를 받는 지역 주민(니시니혼신문, 2023년 12월 21일)

→ 지역 안전문화로 전개
→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원자력 방재훈련과는 상이함
또한 해당 '원자력 항공모함' 및 '원자력 잠수함'은 핵무기 탑재와는 상이함

※ 사세보시는 '사세보시에 기항하는 미국 원자력 함정'을 대상으로 함. 「원자력추진 함정의 원자력 재해 대책에 대하여」 사세보시, 2026년 6월 5일.

기타큐슈·고쿠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지역 안전문화 형성에 관한 고찰

Ⅱ 비핵 규범의 지역적 전개

· 고베시의회의 기항 거부 결의(비핵 고베 방식)

■ 평화도시 선언(1962년)

1974년의 이른바 '라로크 증언'
→ 미국의 핵무기 탑재 군함은 외국 항구 기항시에도
핵무기를 하역하지 않는다는 증언

■ 핵무기 탑재 함정의 고베항 입항 거부에 관한 결의(1975년)

고베항은 입항 선박 수 및 취급 화물량으로 보더라도 세계의 대표적인 국제 상업 무역항이다. (중략) 이 항구에 핵무기가 반입된다면, 항만 기능의 저해는 물론 시민의 불안과 혼란이 예상되는 바이다. 따라서 따라서 고베시의회는 핵무기를 탑재한 함정의 고베항 입항을 일절 거부한다.

■ 비핵평화도시에 관한 결의(1983년)

고베시 「평화 관련 결의」 (2023년 8월 29일,
https://www.city.kobe.lg.jp/a14881/bosai/disaster/heiwa/heiwa01.html)

Ⅲ 평화·비핵도시 관련 논의

· 기타큐슈시의회의 논의

1981년5월, 야마다 탄약고(야마다 녹지)의 핵 반입 의혹

- 기타큐슈시의회 1983년 9월 정례회 「비핵도시 선언에 관하여」 (1983년) 제32호「비핵 · 평화도시 선언에 관하여」가결
- 기타큐슈시의회 2002년 12월 제4회 정례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국방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전속 관할 사항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나 비핵평화도시 선언에 대해서는, 이 선언은, 이미 여러 차례 이 본회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에게 긴급, 또는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실효를 거두어야 하는 문제 등에 한정해야 하는…

2009년4월, 오바마 미대통령 '프라하 연설'

- 시의회, 「기타큐슈시 비핵평화도시 선언에 관하여」 가결(2009년 12월)
- 기타큐슈시, 비핵평화도시 선언(2010년 2월)

「1983년 기타큐슈시의회 회의록」 외, 기타큐슈시의회 회의록 검색시스템 참조

기타큐슈·고쿠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지역 안전문화 형성에 관한 고찰

Ⅲ 평화·비핵도시 관련 논의

· 기타큐슈시 비핵평화도시 선언(2010년 2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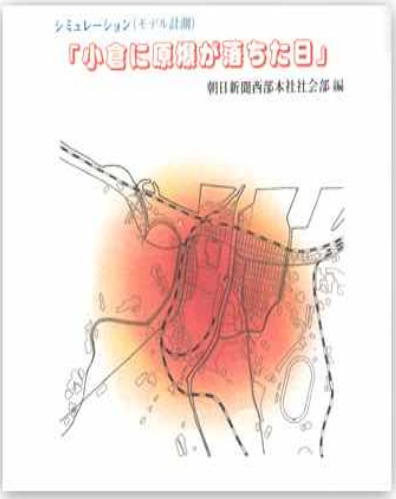
비핵평화도시 선언 기념식(제공: 기타큐슈시)

가요코 벚나무 식수식(제공: 기타큐슈시)

기타큐슈·고쿠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지역 안전문화 형성에 관한 고찰

Ⅳ 기타큐슈의 안전문화 형성과 평화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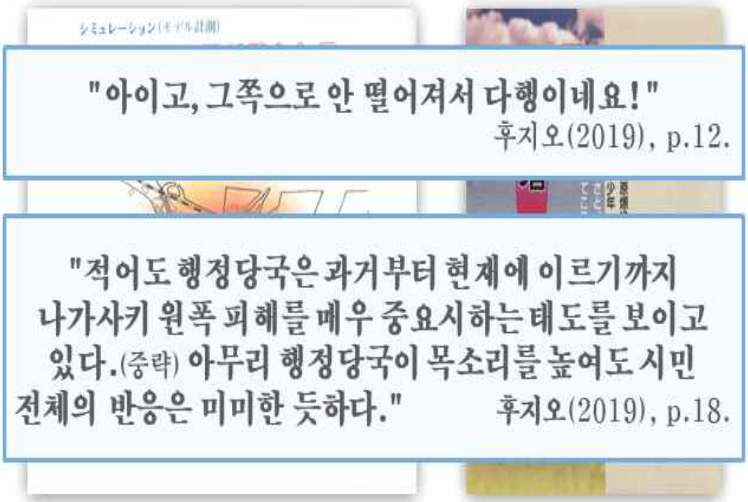
·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역 안전문화 형성(기억 계승)



기타큐슈·고쿠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지역 안전문화 형성에 관한 고찰

Ⅳ 기타큐슈의 안전문화 형성과 평화 행정

·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역 안전문화 형성(기억 계승)



Ⅳ 기타큐슈의 안전문화 형성과 평화 행정

· 지차체의 방향성과 의의

■ 시책명: 평화의 숭고함에 대한 이해 촉진

기본자세	유대감을 있는다	
	대항목	모든 시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자기답게 살 수 있는 마을 조성
	노력 방침	평화를 위한 노력 추진

■ 2009년도~2023년도
- 국별 시책 평가표
- PDCA점검표(실적 평가)
- 행정평가 추진 결과

우리 시의 평화에 대한 기본 자세를 담은 「기타큐슈시 비핵평화도시 선언」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2016년도 시책 방향 (2014년도 행정평가 추진 결과, 총무기획국)

2009	전몰자 등 추모사업, 전시 자료 전시 코너 관리 · 운영사업
2010	기타큐슈시 비핵평화도시 선언 추진사업
2011	기타큐슈시 비핵평화도시 선언 추진사업
2012	기타큐슈시 비핵평화도시 선언 추진사업
2013	기타큐슈시 비핵평화도시 선언 추진사업
2014	기타큐슈시 비핵평화도시 선언 추진사업
2015	전후 70년 · 평화 증진 사업
2016	비핵 · 평화 증진 사업
2017	(가칭) 평화자료관 건립사업, 비핵 · 평화 증진 사업
2018	(가칭) 평화자료관 건립사업, 비핵 · 평화 증진 사업
2019	(가칭) 평화자료관 건립사업, 비핵 · 평화 증진 사업
2020	(가칭) 평화자료관 건립사업, 비핵 · 평화 증진 사업
2021	(가칭) 평화자료관 건립사업, 비핵 · 평화 증진 사업
2022	평화의 도시 뮤지엄 관리 · 운영사업, 비핵 · 평화 증진 사업
2023	평화의 도시 뮤지엄 관리 · 운영사업, 비핵 · 평화 증진 사업

기타큐슈·고쿠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지역 안전문화 형성에 관한 고찰

Ⅳ 기타큐슈의 안전문화 형성과 평화 행정

· 기타큐슈 중심지에 평화의 도시 뮤지엄(평화자료관) 건립

■ (가칭) 평화자료관 건립 방침 표명(2017년 2월 본회의 시장 답변)

…나가사키 원폭의 제1 투하 목표였다는 역사적 배경 등을 바탕으로 (중략) 검토한 결과, 가쓰야마 공원 내 설치 방침을 제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원폭 투하 예정지가 그 밖에도 있었으나 실제로 폭격기가 왔음에도 투하하지 않은 곳은 기타큐슈시 뿐이라는 점 (중략) 가쓰야마 공원 내 건립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전시 자료 전시 코너(총무시민 · 지역진흥)
전몰자 추도식(보건복지 · 총무)
원폭 희생자 위령 · 평화기원식(보건복지 · 총무)
위령탑 등 관리(보건복지 · 총무)
나가사키 원폭전(총무시민 · 총무과)
'가요코 벚나무' 식수식(총무시민 · 총무과)

2022년 →

평화의 도시 뮤지엄 관리 · 운영사업
비핵 · 평화 증진 사업

■ 비핵평화도시 선언 이후 주요 사업 전개
- 식수사업 확대 - 청소년 파견사업 확대
- 모든 시민센터 등에 선언문 패널 게시
- 평화수장회의 · 비핵선언지방자치단체협의회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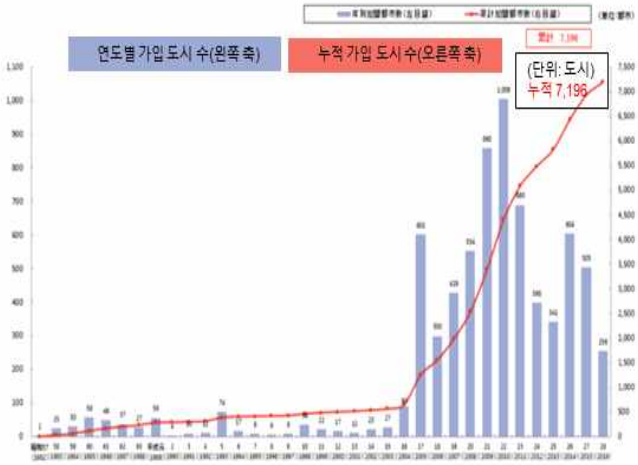
※ 인천, 2019년에 가입

「기타큐슈시의 평화사업」, 총무시민국 총무과

기타큐슈·고쿠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지역 안전문화 형성에 관한 고찰

Ⅳ 기타큐슈의 안전문화 형성과 평화 행정

- 지역 차원(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화
- **전국 1,78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674곳(약 93%)이 비핵 선언.**
- **국제적으로도 '평화수장회의'(구 평화시장회의) 가입 도시가 급증.**



평화수장회의 가입 도시 수 추이(히로시마시 평화추진과)

비핵 선언 지자체 수		
도도부현	합계	42지자체
정령지정도시	합계	20지자체
시(정령시 이외)	합계	758지자체
정	합계	671지자체
촌	합계	160지자체
	총계	1,674지자체

비핵선언지방자치단체 수, 2026년 7월 1일 현재
(일본비핵선언지방자치단체협의회)

기타큐슈·고쿠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지역 안전문화 형성에 관한 고찰

Ⅳ 기타큐슈의 안전문화 형성과 평화 행정

- **평화 행정의 과제**

N=37人

항목	응답수	비율
① 인권교육·인권계몽활동	5	13.5%
② 평화교육·인권계몽활동	12	32.4%
③ 외국인과의 공생 사회 실현	6	16.2%
④ 젠더 평등사회 이해 촉진	11	29.7%
⑤ 기타		
무응답		

◆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는 지역 조성에 대하여.

1위: 평화교육·인권계몽활동

2위: 젠더 평등사회 이해 촉진

3위: 외국인과의 공생 사회 실현 16.2%

"평화의 숭고함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과연 무엇을 통해서 촉진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시책입니다."

(2009년도 시행 시책・국별 시책 평가표)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는 지역 조성'에 대한 응답 (2024년도 시민의식조사: 기타큐슈시 행정에 바란다)

Ⅳ 기타큐슈의 안전문화 형성과 평화 행정

· '새로운 비전'에 대한 의견 수렴(2023년 12월)

■의견 요지(28번)

기타큐슈시는 비핵평화도시 선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의 '기본구상'에서도 (중략) 기타큐슈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 시의 입장

의견에서 언급된 평화 관련 기술에 대해 기존의 기본구상 · 기본계획에서는 기본계획의 분야별 '시책'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새로운 비전은 '정책' 수준까지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기타큐슈시 기본구상 · 기본계획)(초안)에 대한 시민 의견 개요 및 시의 입장, 기타큐슈시 정책국 정책부 정책과

결론

· 과제① '국가의 전속 관할 사항'과 지역 안전문화 형성

該密約など認定

有識者委報告書

「政府のうそ」明白に

外相 歴代首相らの責任指摘

トヨタ

「電子制御に問

反証実験を

「迷惑掛け

외무성에서 미-일 비밀합의 조사팀 책임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오카다 외무상, 2009년 9월 《아사히신문》 미-일 핵무기 비밀합의 문제에 관한 보도, 2010년 3월 《나가사키신문》

→ 미국의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과 외교 · 안보정책상의 과제
→ 지역 차원(행정 · 시민)에서는 어떠한 안전문화를 형성하고 어떠한 도시상을 지향할 것인가

기타큐슈·고쿠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지역 안전문화 형성에 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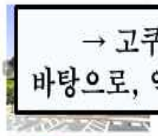
결론

· 과제② 고쿠라의 역사적 경험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코스

1) 가쓰야마 공원
교육·체험 및 놀이 시설이 모여 있는 기타큐슈시의 상징적 공원

2) 기타큐슈시 평화의 도시 뮤지엄:
교육·체험 및 놀이 시설이 모여 있는 기타큐슈시의 상징적 공원



기타큐슈시 정보발신강화위원회

본교 지역활동 '미래 평화 프로젝트', 기타큐슈시립대학 지역공생교육센터 · 니시니혼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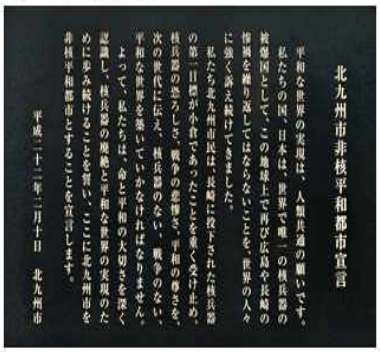
→ 고쿠라가 8월 9일 원폭 투하의 제1 목표지였다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역사 · 평화 · 교육 · 관광 등 지역의 핵심 주제와 연계한 활동 전개

기타큐슈·고쿠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지역 안전문화 형성에 관한 고찰

결론

· 시청 로비 좌우에 전시된 '나가사키의 종'과 비핵평화도시 선언문

기타큐슈시청 로비



北九州市非核平和都市宣言

平和な世界の実現は、人類共通の願いです。
私たちの国、日本は、世界で唯一の核兵器の被爆国として、この地球上で再び広島や長崎の惨禍を繰り返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世界の人々に強く訴え続けてきました。
私たち北九州市民は、長崎に投下された核兵器の第一目標が小倉であったことを重く受け止め、核兵器の恐ろしさ、戦争の悲惨さ、平和の尊さを、次の世代に伝え、核兵器のない、戦争のない、平和な世界を築い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よって、私たちは、命と平和の大切さを深く認識し、核兵器の廃絶と平和な世界の実現のために歩み続けることを誓い、ここに北九州市を非核平和都市とすることを宣言します。

平成二十二年二月十日　北九州市

기타큐슈시청에 전시된 「기타큐슈시 비핵평화도시 선언」 선언문

→ 2012년도 「기타큐슈시 비핵평화도시 선언 추진사업」 성과의 일부

고쿠라의 역사적 경험은 기타큐슈시의 비핵 · 평화행정과 지역 안전문화 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본 보고는 시민 · 행정 · 국가 · 국제사회를 아우르는 다층적 행위자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행정과 지역 정체성 형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Memo]